



인권정보자료실
Mc1.34

경기북부
기지촌지역
성매매
근절을
위한
피해여성
지원사업
보고회
자료집

경기북부 기지촌지역 성매매근절을 위한 피해여성 지원사업 보고회 자료집

2003.12.



480-060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116번지
전화 031 841 2609/ 전송 031 841 2608/ 전자우편 durebang@hotmail.com

Mc1.34

주최 _ 두레방
후원 _ 경기도 제2청사 여성복지과



경기북부 기지촌지역 성매매근절을 위한
피해여성 지원사업 보고회 자료집

2003.12.

주최 _ 두레방

후원 _ 경기도 제2청사 여성복지과

프로젝트 자문위원 명단

자문위원장

문 정 주 || 연천군 보건의료원 원장

자문위원(가나다순)

공 성 애 || '벗들의 집'
권 오 영 || 파주 성폭력상담소 '돌' 소장
김 환 철 || 경민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박 성 애 ||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 민 환 || 경기북부 여성폭력 이등상담소 소장
전 우 섭 || 동두천 '다비타의 집' 대표
표 상 신 || 경기북부 여성지도자과정 총동창회 회장
한 국 염 ||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프로젝트 실무팀

총책임

유 영 남 || 두레방 원장

실무책임

김 동 심 || 두레방 상담실장

상담원

김 동 심/ 차 스 민/ 어 트 커

현장지원 및 보고서 작성

유 영 남/ 김 동 심/ 정 혜 진/ 차 스 민/ 어 트 커

번역

최 수 연/ 강 세 기/ 김 수 영

차 례

출구를 찾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사람들	4
I. 서론	6
II. 개괄적 보고	11
1. 개요	11
2. 대상 및 상담방법	14
3. 성매매 근절 캠페인	15
4. 무료 진료	17
5. 상담을 통해 본 여성들의 인권실태	19
III. 지역별 보고	31
1. 의정부	31
2. 동두천/턱거리	54
3. 파주	75
IV. 정책제안	93
V. 부록	98
1. 상담사례	98
2. 설문지	128

표 차례

<표1> 예술 흥행 및 단기종합 자격 외국여성체류 현황	9
<표2> 외국인전용클럽 허가현황	20
<표3> 정기검진현황	21
<표4> 긴급지원현황	21
<표5-1> 나이(필리핀)	22
<표5-2> 나이(한국)	22
<표5-3> 나이(러시아)	22
<표6-1> 교육수준(필리핀)	22
<표6-2> 교육수준(한국)	22
<표6-3> 교육수준(러시아)	22
<표7> 의정부시 외국인 전용클럽 허가현황	23
<표8> 동두천시 외국인 전용클럽 허가현황	26
<표9> 파주시 외국인 전용클럽 허가현황	30
<표10> 의정부 클럽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31
<표11> 근무환경 및 생활수준	33
<표12> 동두천 클럽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55
<표13> 근무환경 및 생활수준	56

출구를 찾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사람들

두레방에서 만나는 여성들과 사귀면서 그들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가 도울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벽들을 부딪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들을 경험하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예나 지금이나, 국경을 불문하고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인 여성들이 출구 없는 삶을 돌파하기 위해서 힘겨운 노력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외국인여성들은 생계해결을 위해서 건강한 공장 노동을 원하며 돌파구로서 성산업에 유입됐을 뿐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나는 여기에서 희망의 싹을 보았다.

만약 우리 사회가 성산업에 유입돼 있는 여성들을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힘쓸 수 있다면, 사실상 세계화하는 물결 속에서 노동력이 전 지구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도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에, 이들에게 분명 출구는 있다.

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크게 도움 줄 사람 없고 달리 구조적으로 가난의 질곡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 여성들을 위하여 올해 경기2청과 두레방은 한 발자국 징검다리를 놓는 일을 하였다.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도움을 주고자 밤낮없이 노력하는 담당실무자들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희망의 싹을 보게 된다. 이들의 노력이 비록 곧바로 열매 맺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도움 받는 여성들의 삶에 크게 희망이 있으면 한다.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자문위원분들을 비롯하여 특히 경기2청 여성복지과분들, 직접적인 실무를 담당하면서 음양으로 도와주신 홍수자 국장님, 강은희 과장님, 최선숙 선생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두레방을 도와주었다.

비록 작은 출발이지만 우리가 올해 해낸 이 일들을 시작으로 이 땅에서 이들이 더 이상 이방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더 이상은 차별 받지 않고 살았으면 한다.

2003년 12월 18일

운영위원장 장 빈
원 장 유 영 님

1. 서론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전세계적인 범죄는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로, 성이나 노동력의 착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마약과 무기밀매 뒤를 이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범죄행위이다. 은밀히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의 통계는 얻기 힘들지만, 비교적 믿을만한 수치에 따르면 대략 70만 명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매년 인신매매되고 있다.

UN의 불법송출에 관한 의정서의 제3항은 (a)'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무력의 사용, 강제, 또는 납치, 사기, 속임수, 권력의 남용 또는 동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혜택이나 대가의 지불 등을 사용하여, 개인을 고용, 이동, 이송, 또는 체류시키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착취라 함은, 최소한, 성적 착취, 강요된 노동이나 서비스, 노예 또는 노예와 유사한 행위, 장기의 이식 등을 의미한다. (b)피해자의 동의가 (a)항에 서술된 착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a)에서 사용된 어떤 형태이든 부적절한 것으로 여긴다. (c)착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 이동, 이송, 또는 체류시키거나 받아들였다면 (a)항에서 언급된 수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불법 송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d)'미성년자'라 함은 18세 이하를 말한다¹⁾.

UN의 인신매매에 관한 이 의정서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건 하지 않았건, 인신매매의 목적이 피해자로 하여금 비인간적인 상태에서 성적 서비스나 노동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면 피해자를 이송하거나 이동시킨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리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인신매매된 여성을 이송하는 방법은 고국에서 바로 목적지인 나라로 이송을 하거나 이민규제가 느슨한 이웃국가를 경유하는 방법이 있다.

인신매매는 또한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피해자가 꼭 국경을 건너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나 노동착취를 위하여 자국 내에서 인신매매된 여성이나 어린이도 같은 현장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1) Guide to the New UN Trafficking Protocol, European Women's Lobby, 2000. 12.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부패한 권력이나 고용기회 또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이나 경제적인 기회가 부족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오게 된다. 그리고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은 소외된 사람들이기에 모든 종류의 착취를 당하기 쉽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경제 상황이 좋아져 부모나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 약속받는다. 왜 불법송출이 일어나는 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개가 성매매나 유흥산업을 위해서이고, 그 외에는 착취적인 공장, 어린이의 불법입양, 장기이식, 강요된 결혼, 우편주문 신부, 가사노동, 노동의 강요(예를 들어, 건설, 공장, 마약의 밀매, 구걸, 그리고 다른 형태의 착취적인 노동)등이 있다.

인신매매는 그 자체가 착취적이며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단기적,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악영향은 다음과 같다.

- 1) 건강 : 반복되는 임신, 출산시의 사망, 성병, 에이즈 등에 걸리기 쉽다.
- 2) 중독 : 마약이나 담배, 술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폐해.
- 3) 정서적인 불안 : 체포, 구금, 가정생활과 사회적인 지원의 박탈, 모욕, 강간, 그리고 학대로 인한 심각한 정서적인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
- 4) 불법 조직체, 경찰, 세관원, 고용주등으로부터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협.
- 5) 당국의 체포, 구금, 기소, 강제출국 :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경우 사회통합의 어려움.
- 6) 경제적인 노예화 : 인신매매 피해자는 자신의 여행경비와 서류대금을 송출업자에게 지불해야만 한다.
- 7) 원치 않은 임신과 아이 : 원치 않은 임신에서 출산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문제와 부모의 부재.

인신매매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시아출신으로, 매년 22만 5천명 이상이 동남아시아에서 그리고 1만 5천명 이상이 남아시아에서 오고 있다. 구소련은 새로운 원천으로 약 10만 명 이상이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위하여 인신매매되고 있다. 약 7천 5백 명 이상이 동유럽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다. 매년 20만 명에서 5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남미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보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약 5만 명이 아프리카대륙에서 송출되고 있다²⁾.

2)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Information and workshop Kit), JPIC working Group on Trafficking of Women and Children, Rome, 2003.

필리핀에 있는 NGO인 가브리엘라(Gabriela)에 의하면 60만 명의 여성들이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5만에서 6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성매매에 관여되어 있다.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60~80% 또는 필리핀인 이주노동자 10명당 6명에서 8명정량이 가사노동이나 유흥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한다. 1998년에 약 640,054명의 필리핀인들이 외국에서 일하기 위하여 고국을 떠났는데, 이는 전년에 비하여 3.5%가 늘어난 것이다. 대개가 미등록노동자들이고 얼마나 많은 수가 인신매매 됐는지 헤아리는 것은 어렵다. 한국에는 약 13만 명의 미등록 노동자 외에 8만 명의 필리핀인 노동자들이 있다. 일본에는 필리핀여성이 주로 유흥업에 일하고 있는데 35,200명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³⁾.

한국에서의 인신매매에 관한 수치 중에는 한국의 성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출신의 2천명에 달하는 여성에 관한 카자흐텔레비전의 보도가 있다. 2002년 4월의 보도에 따르면, 2000년 1월과 3월 사이, 6천명에 달하는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⁴⁾. 2000년 1월에 한국경찰은 고용업주와 술집주인을 포함한 조직원 수명을 체포하여 기소하였다. 같은 해에 국제이주기구는 페루출신의 인신매매된 여성노동자를 도와주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예술홍행비자(E-6)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이 '연예인(엔터테이너)'의 이름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예술홍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여성의 수는 1994년에 649명, 1995년에 1,550명, 1997년에 2,211명, 1998년에 2,150명, 1999년에 4,486명, 2000년에는 7,044명, 2001년에는 8,586명으로 급증하다가 2002년 6,45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까지 연예인으로 들어온 외국여성의 85%가 필리핀 출신이었다. 하지만 1999년부터는 러시아계 여성수가 필리핀을 앞질렀으며, 2000년에는 외국여성의 46.8%가 러시아계 여성이었다. 한국에 훨씬 많은 여성들이 관광비자로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로 각종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3) Gabriela, "Stop Sex Trafficking of Filipino Women and Children!", June, 1999. (<http://members.tripod.com/>)

4) "Trapped in Modern Slavery :Sex trafficking turns Russian women into Korean pawns", Ben Jhoty (http://www.koreaherald.co.kr/SITE/data/html_dir/2001/11/02/200111020003.asp)

체류자격	구분	총계	중국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기타
E-6 예술홍행	총체류	5,274	58	2,535	1,781	7	285	608
	합법체류	3,463	51	1,937	844	1	169	461
	불법체류	1,811	7	598	937	6	116	147
C-3 단기종합	총체류	59,087	36,422	5,775	3,283	160	1,692	11,755
	합법체류	18,220	8,362	3,462	399	56	212	5,729
	불법체류	40,867	28,060	2,313	2,884	104	1,480	6,026

<표 1> 예술 홍행 및 단기종합 자격 외국여성 체류 (2003년 7월 31일 현재)

2002년 8월, 타임지에 한국의 미군기지주변 기지촌에서 착취당하는 러시아,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기사가 실리자 경찰청은 바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여성에 대한 감금윤락행위 등 인권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외국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 후 2002년 12월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1년 동안 실시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 등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결국 2002년 12월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은 만일 고용주가 예술홍행자격을 가진 외국여성에 대해서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외국여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보관함으로써 당해 외국여성의 출국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거나 착취 등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반할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2003년 6월 1일부터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무회에 대한 사증발급을 중단하였다.

한국정부는 또한 올해 서울을 비롯한 2개 지역에 외국인 여성 전용쉼터를 열고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 여성전용쉼터는 지난 6월까지 33명의 외국여성을 일시보호하면서 법률, 의료지원, 출입국관리 문제 해결,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여 15명을 귀국토록 지원하고, 12명은 귀국을 도왔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국내여성과 외국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 그러나 이 사업은 홍보부족과 통역서비스도 없을 정도의 현실적 지원내용의 부족으로 외국여성들에게 도움을 준 사례

는 아직 없다.

한국여성들의 경우는 인신매매의 대부분이 '취업사기'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인신매매성 직업소개 부조리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노동관서가 매분기 1회, 필요시 경찰과 합동 수사단속 등을 통해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등록된 직업소개소 5,572개(유료 5,169개, 무료 403개) 중 2001년엔 총 1,441건, 2002년엔 총 1,317건의 지도점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의 경제적 규모가 24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발표하였다(2003년 2월 5일).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성매매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최소 3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수치는 여성단체들이 추정하는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3년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매매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최소 120만 명으로 15~29세까지의 전체 여성 중 20%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며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기지촌 지역은 위와 같이 한국여성의 인신매매문제와 외국여성의 인신매매 문제가 섞여있는 곳이다. 또한 한국여성과 외국여성의 문제가 모두 미군과 연관되어 있고, 특히 기지촌 지역의 외국여성들의 경우에는 비자문제까지 있어 더욱 복잡하다.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이 복잡한 착취의 고리를 끊고 스스로 그곳을 탈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리한 구조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대판 노예제도라 할 수 있는 이 비인간적인 범죄를 근절해야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많은 단체들이 함께 인신매매를 근절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인신매매되는 피해여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지원하면 더불어 평등하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 10개월간 벌인 상담과 지원활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부족한 상담원 수와 재정, 보장되지 않은 신분으로 인한 신분위협 등 제한된 조건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피해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부디 이 자료집이 기지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II. 개괄적 보고

1. 개요

미군기지 주변의 클럽에서 일을 하거나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사업은 두레방이 설립된 1986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계속해온 일이다. 그러나 올해의 사업이 그동안의 사업과 다른 특성과 의의를 갖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번째로 이번 사업은 경기도 제2청사 여성복지과가 두레방이 현장에서 더욱 깊이 있는 상담과 지원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행정적으로도 지원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지촌 성매매 근절을 위한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북부지역에서 이루어진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첫번째 협력사업으로서 경기2청사 여성복지과의 지원은 현장에서 민간단체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두 번째로 그동안의 두레방 사업대상지역이 의정부시 고산동 캠프 스탠리 주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올해는 대상지역을 의정부뿐만 아니라 파주와 동두천까지 포함해 경기북부지역 전체로 확대하였다는 것도 작년까지의 사업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그동안 많은 상담과 지원, 각종 프로그램이 한국여성들 중심이었고 외국여성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면 올해는 한국여성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여성들과 러시아 여성들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경기도 2청의 재정적 지원으로 러시아어와 필리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각 나라 여성들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상담을 할 수 있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

네 번째로 이 사업은 여성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시민들의 성매매근절 의식을 높이고 양성평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홍보사업으로서 캠페인 사업도 함께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세부사업에는 경기2청은 물론 자문위원으로 함께 한 경기북부지역의 다양한 시민단체대표와 상근활동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연대하였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4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여성들 외에 시민들과 함께 한 사업설명회와 캠페인, 자문위원회 회의, 무료진료가 있었다. 5월에 가진 사업설명회는 경기도 제2청사 대강당에서 진행하였으며 전체적인 사업방향과 의의를 의정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250여명의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지원을 부탁하였다. 또한 기지촌 여성에 관한 다큐멘터리 '나와 부엉이' 상영회도 함께 가졌다.

성매매근절 캠페인은 7월과 10월에 의정부 역 앞, 파주 터미널 앞, 동두천 터미널 앞에서 각각 한번씩 모두 세 번을 하였다. 캠페인에는 총 60명 이상의 참여하여 진행하였고, 5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함께 하였다. 캠페인에서는 성매매근절에 대한 내용의 리플렛과 풍선 등의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전물을 게시하였으며, 성매매 안하기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서명에는 총 1,500명이 참여하였다.

자문위원회 회의는 총 2회를 하였으며 5월과 7월에 열렸다.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전체 사업계획 공유 및 논의를 하였고 무료진료와 캠페인 등 세부 사업계획을 검토하였다.

무료진료는 표본지역으로 두레방이 위치하고 있는 의정부시 고산동을 선정하여 7월과 10월에 걸쳐서 두 번 실시하였다.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과로 의료진 12명이 진료를 하였다. 한국여성들의 경우는 내과나 한방과 치과의 이용이 고르지만 필리핀 여성들의 경우는 치과이용자가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은 내과였다. 러시아 여성들의 경우도 치과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

여성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요일과 시간이 중요하다. 무료진료 시간이 오후 3시까지로 한정되어 있고 2회 때는 여성들이 제일 바쁜 금요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무료진료를 받지 못했다. 또한 치과진료는 보건증이 없으면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여성들이 다 이용할 수는 없었다.

1회에 58명, 2회에 34명으로 총 92명이 이용하였으며 이 숫자에는 지역 주민도 포함된다. 순수하게 클럽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여성들은 1회 때 19명 2회 때 7명이 진료를 받았다.

미군기지 주변의 여성들에 대한 상담은 세 명의 여성 상담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명은 영어와 필리핀어, 한국어가 유창한 필리핀 수녀이고, 다른 한명은 러시아어와 영어, 몽골어, 한국어 등이 유창한 몽골인 여성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명은 두레방에서 상근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활동가이다. 이 세 명이 주로 각 나라 여성들을 나누어서 상담을 하였으며 두레방의 다른 상근자들이 함께 지원하였다.

상담원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모임을 가졌으며, 일주일의 보고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공유하였다. 주된 상담원은 세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은 나누지 않고, 나라별로 나누어 상담을 진행하였다. 즉 세 명의 상담원이 파주 동두천, 의정부 세 지역을 모두 다니면서 여성들을 만났다.

상담원들은 먼저 지역을 다니면서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만들어진 두레방의 홍보물과 거울 같은 물품 등을 나누어 주며 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기존에 알고 있는 여성들에게 다른 여성을 소개 받기도 하였다. 여성들이 두레방을 방문하거나 두레방의 상담원들이 밖에 나가서 만난 여성들은 200명도 넘지만 그중에서 상담을 한 여성은 모두 158명으로 집계되었다. 두레방에 상담을 한 158명은 러시아와 필리핀, 한국여성들의 수를 모두 합친 것으로 각 나라 여성마다 그들의 문화와 처해진 환경에 따라 상담자의 수가 달라졌다.

공동체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필리핀 여성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러시아 여성과 언어나 문화적으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별로 없는 한국여성보다 상담이 훨씬 많았다. 158명중 필리핀 여성은 86명, 러시아여성 36명, 한국여성 36명이다. 특히 한국여성의 경우는 세 지역 중 의정부와 파주에 더 많이 집중하였다. 그 이유는 동두천에는 새우터와 다비타의 집 등 2개의 민간단체가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고, 의정부에는 두레방 한곳만이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주는 한 개의 민간단체도 없기 때문이다.

두레방을 방문하는 외국여성들은 상담 외에도 러시아와 필리핀책을 빌려가거나 미술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도 많았다.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10월까지 현장상담을 마치고 자료정리 작업을 하려

하였으나 두레방이 현장에 있는 관계로 상담은 계속 이루어졌다. 이 자료집에는 12월 초까지의 상담상황을 정리하였다. 상담원들은 상담과 인터뷰, 설문 등을 분석해 이 보고서에 실었으며 각각의 상담원들이 제출한 글은 최대한 그대로 실으려고 노력했다. 각 나라에 따라 여성들의 성향이나 삶의 방식이 다르고 느끼는 어려운 문제도 다를 수 있으며 때문에 정리하는 상담원들도 정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개괄적 보고의 목적은 전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각각의 지역별 보고를 보기에 앞서 전체적인 사업의 밑그림과 여성들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괄적 보고에 나오는 내용은 지역별 세부 내용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보고에서 볼 수 있다.

2. 대상 및 상담방법

대상지역은 총 3개 도시 5개 지역이다. 파주의 캠프 하우스 앞의 봉일천과 캠프 게리오웬 앞의 선유4리,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앞 보산동과 캠프 호비 앞의 덕거리(광암동),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 앞의 고산동이다.

우리가 상담한 여성들은 현재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예전에 클럽에서 일했던 여성, 클럽에서 도망친 여성, 미군과 결혼한 여성, 미군과 동거하고 있는 여성들이었다.

상담을 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한 가지는 자연스러운 상담으로 우리를 알고 있는 여성들이 자신이 상담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찾아와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상담원들이 현장상담을 나가 여성들을 만나고 자연스런 친분을 갖게 되면 상담과 더불어 여성들의 인권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시 여성들을 찾아가 만나서 자연스런 친분을 쌓은 후 상담과 더불어 그들의 인권실태 파

악을 위한 심층인터뷰를 병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난 필리핀 여성 86명중 설문에 응한 여성은 모두 28명이며 인터뷰에 응한 여성은 9명이었다. 러시아 여성의 경우는 설문에 응한 여성은 16명, 인터뷰에 응한 여성은 5명이었다. 한국여성의 경우는 현장 상황상 설문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터뷰에 응한 여성은 15명이었다.

인터뷰의 경우는 기록을 하거나 테입 녹음과 기록을 병행하였다. 인터뷰는 개인생활과 어려운 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성매매 근절 캠페인

1) 의정부 지역

- ▶ 일시 : 7월 16일 (수) 오후 4시~6시
- ▶ 장소 : 의정부 지하철역 광장
- ▶ 진행참여인원 : 40명

두레방/ 경기2청 여성복지과(강은희 과장 외)/ 다비타의 집(전우섭 위원 외)/ 경기북부 여성지도자과정 총동문회(표상신 원 외)/ 동두천 성폭력상담소(박성애 위원 외)/ 파주상담센터 딸(권오영 위원 외)/ 문정주 위원장/ 김환철 위원/ 이화여대 총학생회, 서울대 학생들, 중앙대 총여학생회 등

- ▶ 캠페인 총 참여인원 : 1,700~1,800 명 내외
- ▶ 내용 : '나부터 성매매 안하기' 서명 운동, '성매매 없는 세상 만들기' 리플렛과 풍선, 볼펜과 버튼 배포, 대자보 선전전, 성매매 근절에 대한 자신의 결심을 나뭇잎에 적어 나뭇가지에 붙이기, 여성들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두레방 로고에 색종이로 모자이크 하기, 성매매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는 질문 판에 스티커 붙이기 등

2) 동두천 지역

- ▶ 일시: 10월 23일 (목) 오후 2시~4시
- ▶ 장소: 동두천 터미널 앞
- ▶ 진행참여인원: 10명
두레방/ 다비타의 집/ 동두천 성폭력상담소(박성애 위원 외)/ 새움터
- ▶ 캠페인 총 참여인원: 1,500명 내외
- ▶ 내용: '나부터 성매매 안하기'서명운동, '성매매 없는 세상 만들기' 리플렛과 풍선, 볼펜과 버튼 배포

3) 파주 지역

- ▶ 일시: 10월 25일 (토) 오후 2시~4시
- ▶ 장소: 파주 터미널 옆 롯데리아 앞
- ▶ 진행참여 인원: 12명
두레방/ 파주상담센터 들(권오영 위원 외)
- ▶ 캠페인 총 참여인원: 1,500명 내외
- ▶ 내용: '나부터 성매매 안하기'서명운동, '성매매 없는 세상 만들기' 리플렛과 풍선, 볼펜과 버튼 배포

세 번의 캠페인은 모두 그 지역의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연대로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었다. 또한 성매매 근절 캠페인으로 인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각종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었다. 파주와 동두천 모두 이러한 캠페인은 처음이었고, 동두천에서는 이 캠페인으로 단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상근활동가들이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아쉬운 점은 예산의 부족으로 캠페인에 책정된 예산은 현수막을 맞출 수 있는 10만원이 전부였으므로 필요한 선전물이나 물품 등을 만들고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풍선과 선전물은 학생들이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소요 경비는 경기북부여성지도자과정 총동창회(회장 표상신 위원)의 후원금 50만원으로 충당하였다. 이후에는 적절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4. 무료 진료

1) 제 1차 무료 진료

- ▶ 일시: 7월 24일 (목) 오전 10시~오후 3시
- ▶ 장소: 의정부시 고산동 두레방 사무실과 마당
- ▶ 의료진: 12명
- ▶ 진료 과목: 내과, 치과, 한방과
- ▶ 통역 및 진행팀: 10명
- ▶ 진료 참여인원: 58명 (여성 19명)
- ▶ 내용: 한국인의 경우는 내과와 한방과 진료가 많았으며 외국여성의 경우는 치과 진료가 가장 많았다.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여성들에게는 두레방에서 준비한 치약 선물과 리플렛 나눠주었다.

2) 제 2차 무료 진료

- ▶ 일시: 10월 24일 오전 10시~오후 3시
- ▶ 장소: 의정부시 고산동 두레방 사무실과 마당
- ▶ 의료진: 12명
- ▶ 진료 과목: 내과, 치과, 한방과

- ▶ 통역 및 진행팀 : 5명
- ▶ 진료 참여인원 : 34명 (여성 7명)
- ▶ 내용 : 한국인의 경우는 내과와 한방과 진료가 많았으며 외국여성의 경우는 치과 진료가 가장 많았다. 많은 여성들이 진료 받지 못하였다.

두 번에 걸쳐 진행된 무료진료는 그리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여성들은 비용과 언어의 문제로 병원치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도움중의 하나가 진료이다. 두레방에서 실시하는 무료진료는 비용이 들지 않고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일이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무료진료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첫째로 여성들은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어느 요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진료를 하는지가 여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1차 진료 때는 목요일이라 요일로는 괜찮은 날이었지만 여성들에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그리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다. 여성들 모두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보통은 밤 12시나 1시에 클럽일이 끝나고, 2차를 나가는 경우에는 새벽이나 아침까지도 일을 하게 되므로 점심때까지는 잠을 자게 된다. 설사 2차를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12시까지 진료를 받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4시나 5시정도까지라면 더 많은 여성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진료시간 조정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정해진 시간이라 조정이 어렵다고 하였다.

둘째로 금요일은 여성들이 일주일중 제일 바쁜 날 중에 하루다. 여성들은 금요일과 토요일이 제일 바쁘다. 평일은 보통 클럽 문을 저녁 6시정도에 열지만 금요일은 보통 2시부터 4시 사이에 여는 곳이 많으므로 여성들이 진료 받기가 어렵다.

셋째로는 한국여성들에 비해 외국여성들이 무료진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료진료 과목 중에서도 특히 치과진료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들은 보건증이 없으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의료진은 혹시 있을지 모를 에이즈 환자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클럽에서 일하는 한국여성들은 보건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외국여성들에게만 보건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또한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은 원래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여성들도 보건증 제시를 요구 받는다.

이들에게 정말 무료진료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치료기구에 1회용으로 갈아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나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또는 무료진료 1, 2주일 전에 미리 혈액검사 서비스 등을 실시해 주는 등의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실제로 무료진료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5. 상담을 통해 본 여성들의 인권실태

그동안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기지촌여성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는 간간히 나왔다. 특히 새움터와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와 그 보고서는 이 방면의 문제를 정리하여 세상에 드러내고 이슈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작년까지 계속된 이러한 실태조사와 우리의 사업이 가장 크게 차별성을 갖는 것은 조사 자체보다 여성들의 상담을 통해 위기시 중재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측면에 힘을 주었다는 것이다. 두레방은 내담자의 위기에 개입하거나 해결을 하였기에 사업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내담자의 위기에 개입을 하거나 해결을 위한 이 사업에서 실행한 일들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인과 러시아 여성에게 영어 가르치기, 필리핀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용법과 기초 컴퓨터 교육, 클럽을 떠날 때 여성들에게 아이를 데려다주는 것, 공장 일자리를 찾는 것, 한국인 의료진이 일하는 병원이나 치과에 여성을 동반하여 가는 것, 러시아 여성이나 필리핀여성이 대출하여 읽을 수 있는 도서실의 운영, 여권이나 서류를 빼앗아간 클럽 매니저와 중재를 하는 것, 임신한 여성을 위하여 자녀 양육을 거부한 미군병사와 협상하기, 미군병사와 결혼한 여성을 지원하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서류를 갖추고 동사무소에 동행하는 일,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 구해주기, 쌀이

나 김치 등의 긴급 생계지원, 도망친 여성들을 위한 쉼터 안내 및 긴급지원,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대한 반대 홍보, 무료 진료, 그리고 이 지역 여성들에게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 다양하다.

<표2> 외국인전용클럽 허가현황 (단위: 명)

시 군 명	클럽 수	고용인원	국 적 별 현 황			비 고
			한 국	러시아	필리핀	
의정부시	18	152	46	39	67	
파주시	17	73	2	64	7	
동두천시	60	336	52	75	209	
계	95	561	100	178	283	

경기북부지역 의정부, 동두천, 파주의 외국인전용클럽 허가현황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수는 <표2>와 같다. 2003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의정부, 동두천, 파주시를 합쳐 총 95개의 외국인 전용클럽이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곳에 총 561명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가가 난 클럽 수는 정확하더라도 고용된 여성들의 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표2>의 여성수보다 한 클럽 당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3>은 각 클럽마다 정기검진 받는 여성들의 수와 검사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이 수치를 보면 각 시와 보건소에서 확인해준 클럽고용여성들이 정기검진을 모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클럽의 총 고용인원보다 정기검진을 받는 여성수가 68명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실제보다 더 적게 집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상담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집계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클럽에서 일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한편으로는 많은 여성들이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소에서 성병관련 항목을 검사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지만 그나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은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지 않으면 최소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없으며 무료진료조차도 받을 수가 없다.

<표3> 정기검진현황 (단위: 명)

시 군 명	검사항목	클럽수	검진인원	비고
의정부시	임질, 에이즈, 매독, 클라미디아	18	152	
파주시	임질, 에이즈, 매독, 클라미디아, 비임균성 질염	17	141	클럽 1개소는 정기검진안함
동두천시	임질, 에이즈, 매독, 클라미디아	60	336	
계		95	629	

대부분의 여성들이 클럽생활이나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하는데 그중에서 외국여성들은 결혼문제나 비자, 체불임금, 탈출, 구직, 병원에 대한 상담이 많다. 한국여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구직, 결혼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사업기간동안 총 30명의 여성에게 31건의 긴급 지원을 하였으며, 그중 6명은 클럽을 탈출하도록 도왔고, 2명은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지원하였다(한명은 아기를 필리핀에 데려다 줌). 그밖에 나머지는 병원비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였다.

<표4> 긴급지원 현황 (단위: 명)

지원내용	쉼터	병원	귀국	구직	생계지원	비자문제	임금	양육비	총계
인원수	6	8	2	9	4	1(1)	1(1)	(1)	31(1)

* 한명은 쉼터지원과 비자문제 해결이 동시에 진행되어 총 인원은 30명이다.

* ()는 지원이 진행중인 경우이다.

1) 여성들의 신상자료

아래의 표들은 우리가 상담한 각나라 여성들의 나이와 교육수준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여성들에 비해 외국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5-1> 나이(필리핀)

(단위: 명)

나 이	15세~20세	21세~30세	31세~40세	정보없음	총 계
명 수	4	16	1	23	44

<표5-2> 나이(한국)

(단위: 명)

나 이	21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총 계
명 수	1	15	9	4	7	36

<표5-3> 나이(러시아)

(단위: 명)

나 이	15세~20세	21세~30세	31세~40세	정보없음	총 계
명 수	1	14	1	20	36

<표6-1> 교육수준(필리핀)

(단위: 명)

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보없음	총 계
명 수	1	0	16	5	22	44

* 졸업하지 않고 중퇴 상태도 포함하여 표시함

<표6-2> 교육수준(한국)

(단위: 명)

교육수준	무 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보없음	총 계
명 수	2	14	2	7	1	10	36

<표6-3> 교육수준(러시아)

(단위: 명)

교육수준	고등학교	대학교	정보없음	총 계
명 수	12	4	20	36

2) 각 지역의 대략적 실태

① 의정부

현재 의정부에는 18개의 외국인 전용클럽이 있다. 이 중 14개는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는 가평동에 있다. 고산동 기지촌은 미군기지가 1970년 파주 봉일천에서 고산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되었다. 미군기지가 이전하기 전, 이곳은 논밭이 있는 평범한 시골마을이었다. 당시 10개의 클럽이 있었는데, 클럽 이외에도 여성들이 있는 소규모의 술집들이 많이 있었다. 지역주민의 말에 의하면 1970년대에는 이 작은 기지촌에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1,000명은 되었다고 한다. 1980년대에는 미군의 감축으로 인하여 이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수는 감소하여 현재와 같은 규모의 기지촌이 되었다.

<표7> 의정부시 외국인 전용클럽 허가현황

(단위: 명)

클럽명	고용인수	국 적 별 현 황			비 고
		한 국	러시아	필리핀	
총 계(18)	152	46	39	67	
유엔(라스베가스)	11	3	-	8	
텍사스	6	-	-	6	
아메리카나	10	-	3	7	
럭키	13	3	-	10	
금성	10	-	-	10	
플레이어	13	-	-	13	
무스탕	10	4	6	-	
어메이징	2	-	2	-	
나이스	11	11	-	-	
스카이	5	1	-	4	
베스트	11	7	-	4	
카모나	7	-	5	2	
락시	6	-	3	3	
파파상	8	5	3	-	
뉴웨이브	6	1	5	-	
하이캣	8	2	6	-	
킹	11	8	3	-	
지하	4	1	3	-	

* 출처 : 의정부시, 2003년 10월말 현재.

<표7>에서 보면 의정부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수는 모두 152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두레방에서 파악하기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주시나 동두천시의 자료보다는 그래도 의정부시가 제일 현장수치와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정부의 각각의 클럽은 최소 5~6명에서 보통은 8명 내외, 최대 20여명까지 여성이 고용되어 있다. 때문에 여성들의 전체적인 숫자는 최소한 2백 명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기지촌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인 여성들이 필리핀이나 러시아 여성들로 대체되었는데, 한국인 여성에 비하여 외국여성들은 비싸지 않고 다루기 쉽기 때문에 클럽의 주인들은 계속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이유로 200명에 달하는 이곳 클럽의 여성들은 대개 러시아나 필리핀여성들로 한국인 여성은 단지 20~30% 정도이다.

송출업체에서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클럽주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매니저가 외국여성들을 데리고 오는데, 여성들은 E-6비자로 한국의 클럽에서 일하게 된다.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의 기지촌으로 유입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난 때문이다. 이들은 봉급 대부분을 고국의 가족을 위하여 보낸다. 대개 한달에 300달러에서 400달러정도를 보내며, 클럽에서 도망을 나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이다. 클럽을 그만두고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도 대부분 일을 하며, 그렇게 번 돈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다.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은 대개 50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으며 주스를 판 것과 2차를 나가는 것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다. 주스는 가짜음료라 불리기도 하며, 2차비용의 커미션은 주스값으로 환산되어 장부에 기록된다. 1970년대에는 2차비용 '숏타임(짧은밤)'이 5달러, '롱타임(긴밤)'이 10달러였고, 1980년대에는 숏타임은 10달러, 롱타임은 20달러였다. 1990년대 이래로 숏타임은 100달러이고 롱타임은 150달러가 되었다. 최근에는 200달러가 되었으나 모두 200달러를 받는 것은 아니며 클럽마다 조금씩 다르다. 여성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한달에 2천 잔에서 3천 잔을 팔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많이 팔리지가 않아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1997년까지 한국인 여성들은 기본급도 없이 일을 하였다. 고산동에서는 1997년에 처음으로 한국여성들이 20만원의 기본급을 받았다.

여성들은 대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클럽으로 일하러 간다. 오후 2시부터 일을 해야 하는 클럽도 있으며 심지어는 더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는 클럽도 있다. 일부 클럽은 여성들을 새벽 4시나 5시까지 일을 시키는 곳도 있다. 고산동은 동두천이나 송탄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영업이 끝난 이후의 시간은 자유롭게 놓아둔다. 그러나 일부 클럽은 정오나 오후 1시부터 노래나 춤연습을 강요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대개 한 집, 또는 한두 개의 방에서 같이 생활을 하며 주인이 사준 재료로 직접 요리를 한다.

1970년대에는 일주일에 두 번 병원에서 성병검사를 하여야 했다. 만일 병이 있으면 그 병원에서 '보호상태'로 억류되어 며칠씩 치료를 받았다. 1980년대에는 일주일에 한번으로 바뀌었고 199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는 한달에 한번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까지 고산동에는 성병치료센터가 두 군데 있었으나 1990년대 이래로 의정부시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는다.

클럽주인들은 외국인여성들에 대하여 불만을 털어놓는다. 그들의 월급 자체가 자기들의 고국에서는 매우 큰돈이기 때문에 러시아나 필리핀여성들은 주스를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러시아나 필리핀에서 이곳으로 온 이유는 미군과 결혼을 하여 미국으로 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사귀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약속시간을 안 지킨다거나 태도가 무례하다는 등 문화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주인들도 있다.

고산동 일대가 여성들을 험하게 다루는 문제는 최근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어떤 클럽은 지각을 하는 여성들에게 1분당 1달러의 벌금을 가한다. 만일 한 여성이 늦게 오거나 주인이 정한 규칙을 위반하면, 그곳의 여성 모두의 자유시간을 줄이는 곳도 있다. 그리고 주인의 감독을 피하려하면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고국에 보내버리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미디어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한국인 여성의 인권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불만도 있다.

의정부 일대, 특히 캠프 스탠리 근처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필리핀 여성들이 제일 많다. 그러나 동두천이나 파주 지역과 다르게 한국여성들이 러시아 여성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에서는 미군과 결혼한 외국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여성들은 더 이상 클럽에서 일하지 않고, 전화카드판매가게, 옷가게 등의 상점에서 일하거나 자녀를 키우며 주부로 사는 여성들도 있다.

② 동두천

동두천은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기지촌이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3분의 1이 동두천을 중심으로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에는 보산동과 광암동(일명 덕거리) 두 곳에 기지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총 60개의 외국인 전용클럽이 있다. 이들 클럽들은 미군만을 위한 것으로 현관에 미군과 그들이 동반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으나 한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입을 허락하는 클럽도 있다.

<표8> 동두천시 외국인 전용클럽 허가현황 (단위: 명)

클럽명	고용인수	국적별 현황			비고
		한국	러시아	필리핀	
총계(60)	336	52	75	209	
U.S.A	6	-	6	-	
읍세션	3	-	3	-	
서울클럽	3	-	3	-	
스매커	3	2	-	1	
VIP	10	2	-	8	
NBA	11	1	-	10	
에이스	9	-	-	9	
플레인	14	2	-	12	
치얼스	6	-	3	3	
BNB	9	-	-	9	
올림푸스	4	2	2	-	
엑스존	2	-	-	2	
M클럽	9	1	-	8	
뉴욕	6	-	-	6	
뉴월드	4	-	-	4	
골프	6	-	6	-	
팝스톤	9	-	2	7	
DMZ	7	2	1	4	
온성	6	-	-	6	
투게더	5	2	-	3	
여우클럽	4	-	-	4	

* 출처 : 동두천시, 2003년 10월말 현재.

클럽명	고용인수	국적별 현황			비고
		한국	러시아	필리핀	
림보	3	-	-	3	
자리바	2	-	-	2	
킹클럽	7	-	-	7	
피스	5	2	3	-	
펌프	2	-	-	2	
레드	0	-	-	-	
데이토나	7	-	5	2	
BMW	3	-	3	-	
U.P	3	-	3	-	
리오	11	1	1	9	
루비	10	2	3	5	
쉐이크타	3	-	3	-	
판도리아	3	-	-	3	
코멧	6	-	3	3	
무스탕	4	1	3	-	
하레이	8	-	-	8	
크라운	3	-	3	-	
히말라야	7	-	-	7	
아메리칸	5	1	-	4	
센터	1	-	1	-	
엔젤	5	-	-	5	
스파이스	6	1	-	5	
호비	7	1	-	6	
그랜드일	10	-	10	-	
바운스	11	7	4	-	
플레티늄	0	-	-	-	
썬샤인	6	-	1	5	
레드	6	3	3	-	
아마존	3	-	-	3	
타임	2	-	-	2	
엠포이어3	3	-	-	3	
블랙잭	4	1	-	3	
로데오	6	-	-	6	
퀸	5	-	-	5	
실론	8	-	-	8	
4H클럽	8	1	-	7	
성광	6	6	-	-	
바니클럽	3	3	-	-	
민들레	8	8	-	-	

이 지역은 전체 고용되어 있는 여성들 중 60% 이상이 필리핀 여성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많은 수는 러시아 여성과 한국여성들 순이다. <표8>에 나타나 있는 클럽수와 고용된 여성들 수는 역시 사실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장단체들은 보통 대략 5, 6백여 명의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댄서나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하여 한국에 왔으나 쇼(show) 타임에 거의 벗은 상태로 춤을 추어야하는 클럽도 있다. 이들의 춤은 미군들에게 크게 선전이 되고 있다. 일부 클럽에서는 스트립쇼도 행하고 있다.

여성들의 기본급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여기에 주스를 판매한 가격을 더해서 받게 된다. 맥주 판매에서는 30%의 커미션을 얻게 되고 더 비싼 음료수의 판매에서는 50~60% 정도의 커미션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모두 합하여 월급으로 받게 된다.

외국여성들은 3개월마다 한번씩 성병검사를 받는데, 임신을 하거나 주스를 많이 팔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고국으로 강제로 송환되기도 한다. 강제송환되면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주인이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외국인 여성들이 대량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부대주변도 많이 변하였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나이든 한국여성들은 클럽주변에서 미군들에게 꽃을 팔기도 하고 클럽 주위에서 미군과 흥정을 하여 여성을 데려다 주기도 한다. 이런 나이든 여성들의 집에 1~5명의 여성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으나 외국인 여성들이 유입되면서 이들은 많이 줄었다.

텍거리는 외국인전용클럽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에서 상태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곳은 캠프 호비의 가까이에 있다. 최근에 이 지역은 정비가 되었으며 강 근처에 새로운 클럽들이 생겼다. 텍거리의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만나는 장소로 이용하였던 곳은 헬프프라이스레스토랑으로, 많은 필리핀 여성이나 러시아 여성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 만난 필리핀 여성들은 호비클럽, 블랙뱅크 클럽, 머니클럽, 플랜터스 클럽, 스노우클럽, 브라운존스 클럽, 제너두클럽등에 일하고 있으며, 스위드 클럽에서는 러시아 여성이 일하고 있는 클럽으로 확인되었다.

동두천에는 현재 새오테와 다비타의 집, 총 2개의 민간단체가 있다. 이 두 단체는 상담을 포함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다.

다비타의 집은 1990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비타의 집은 매주 수요일 상담활동을 하면서 여성들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 일요일에는 함께 예배를 드린다. 선교활동을 위하여 영어와 러시아어로 번역이 된 자료들을 클럽의 여성들에게 나누어 준다. 또한 5년 전부터 여성들의 재활사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쌀, 양배추, 오이, 고구마 등을 경작하여 교회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을 여성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이나 공부방, 동성애자상담, 에이즈환자를 위한 보호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새오테는 1996년 11월에 문을 열어 여성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1997년 이래로 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은 재활사업이며 재활용종이를 이용한 카드, 구슬공예 등을 만들어 팔고 있다. 또한 미술치료나 캠프 등을 하고 있으며 기지촌주변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하고 있다.

③ 파주

파주지역은 캠프 하우스 앞 봉일천과 캠프 게리오웬 앞 선유4리에 외국인 전용클럽들이 밀집해 있다. 이곳에서는 필리핀여성과 한국여성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대부분이 러시아여성들이다. 필리핀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는 곳은 맥키클럽, 엘라프린스클럽, 크링클럽, 파리클럽 등이었고, 제리클럽과 아더클럽에서 한국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나이 들어 은퇴한 한국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거의 독신이며, 대부분 질병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대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서 생계비 지원금으로 생활하거나 일용직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간혹 미군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와 함께 사는 경우는 대부분 아이들이 20~30대의 노동연령이므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하여 생활이 더 불안하기도 하다.

<표9> 파주시 외국인 전용클럽 허가현황

(단위: 명)

클럽명	고용인수	국적별 현황			비고
		한국	러시아	필리핀	
총계(17)	73	2	64	7	
엔젤클럽	3	-	3	-	
팝클럽	5	-	5	-	
에이스	6	-	6	-	
럭키	4	1	3	-	
달클럽	4	-	4	-	
무지개	2	-	2	-	
스마일관광	5	-	5	-	
텍사스클럽	4	-	4	-	
산장클럽	6	-	6	-	
킹클럽	2	-	2	-	
컨츄리클럽	3	-	3	-	
메트로폴리탄2	4	-	-	4	
VIP클럽	4	-	4	-	
엘비스클럽	10	10	6	3	
파라다이스클럽	3	3	3	-	
뉴파라다이스클럽	3	3	3	-	
션클럽	5	5	5	-	

* 출처 : 파주시, 2003년 10월 말 현재.

이들이 호소하는 이야기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았다. 아래의 <표9>는 파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파주의 외국인 전용클럽 수와 현재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수이다. 하지만 클럽에서 일하지만 집계되지 않은 여성수와 은퇴 후 아무런 대책 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의 수를 더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지역에 따른 상세한 상황을 보고하고자 한다. 지역의 상호명과 여성의 이름은 신변보호를 위해 변경하였음을 밝혀둔다.

III. 지역별 보고

1. 의정부

1) 필리핀 여성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클럽에서 일하는 필리핀여성에게 설문지를 배포했고 그 중 6명만이 설문문에 응했으며 두레방과 접촉을 가졌다. 다른 두 명(*표시)은 길거리, 식당, 상점에서 만나는 등 다른 경로를 통해 만난 여성이다. 상호명과 여성의 이름은 신변보호를 위해 변경하였다.

<표10> 의정부 클럽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이름	클럽	나이	입국일자	교육수준	출신지
리인Lyn (Q)**	로만 Roman	27	2003년 6월 26일	대학교	사마Samar
라이자Liza (Q)	로만	24	2003년 6월 26일	고등학교	카바이트Cavite
리치Richie *	프라임로즈 Primerose	-	-	-	-
아그네스 Agnes*	프라임로즈	-	-	-	-
캐리Carrie (Q)	폼폰 Pompon	23	2003년 10월 12일	대학교	비콜Bicol
맨디Mandy (Q)	폼폰	29	2003년 10월 18일	고등학교	마닐라Manila
멜리Melly (Q)	폼폰	20	2003년 10월 12일	대학교	다바오Davao
크리스Cris (Q)	폼폰	26	2003년 10월 12일	고등학교	레이엣Leyte
마에Mae	플로어스Flores	23	2003년 7월 30일	고등학교	다바오Davao
아이비Ivy	플로어스	-	2003년 7월 30일	고등학교	마닐라Manila
트리샤Trixia	플로어스	-	2003년 6월 20일	고등학교	불라칸Bulacan
킷Kit	플로어스	-	2003년 6월 20일	고등학교	팜팡가 Pampanga
미르나Myrna	플로어스	-	2003년 6월 20일	고등학교	팜팡가

* 한차례 만남/ ** 필리핀에 돌아감/ Q 설문지에 응한 여성/ - 정보없음

최근에 상담원은 무스키에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을 잠깐 만났었다. 당시 무스키에 클럽과 아모레 클럽에는 각각 5명의 필리핀여성들이 새로 들어왔으며, 필리핀 여성들이 주로 모이는 식당이 임시 휴업을 한 상태라 클럽여성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설문지 작성에 6명만 응할 수 있었다(2명은 로만 클럽, 4명은 폼폰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 조사에 응한 여성 중 로만에서 일하는 여성 한 명은 가족들의 만류와 클럽 생활을 견딜 수 없어서 필리핀으로 되돌아갔다.

로만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다. 리인은 사무실에서, 라이자는 가게점원으로 일했으며, 폼폰 클럽에서 일하는 맨디와 크리스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각각 한 달에 4, 5백 달러를 받으며 클럽에서 일을 했다.

플로어스 클럽에서 일하는 마에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세 번의 계약을 마치고 1천 6백달러를 벌었다. 지금 그녀는 밴드에서 활동한다. 그녀는 연예인 등록증(ARB-Artist Record Book)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필리핀 여성들 대부분은 '가짜'라고 한다. 대부분 여성들은 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진짜 ARB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증만 받기 위해 연수만 잠시 받았다고 한다. 처음 그녀가 한국에 왔을 때, 밴드 일을 할 줄 알았던 그녀는 섹시한 옷을 입고 무용수로 일해야 했고, 마에는 그 사실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춤을 배우는 데는 꼬박 한달이 걸렸다고 한다.

리인과 라이자는 로만 클럽에서 일하며 2003년 7월3일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클럽 특실에서 한국인을 접대했다고 한다. 특실은 두 여성의 숙소 바로 옆에 있었으며, 리인은 필리핀에 있는 알선업체와 알선업자인 그녀의 사촌에게 전화를 해서 특실에 대한 불만사항을 말하고, 동두천으로 클럽을 옮기고 싶다고 했다. 필리핀 여성들보다 먼저 클럽에서 일한 러시아 여성들은 자신들은 항상 특실에 불러 다녔다고 했다. 그 러시아 여성은 한번은 클럽사장에게 왜 미군만 받기로 해놓고 한국인까지 접대해야 하느냐고 항의 했다고 했으며, 손님이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할 때마다 불만을 말하는 자신을 클럽사장이 꺼려한다고 했다. 여성들은 계약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른 일을 하기 원한다. 그러나 클럽 안에서 어떻게 대우 받느냐의 문제 또한 중요한 것이다.

<표11> 근무환경 및 생활수준

이름	클럽	술판매커미션 (할당량)	2차 커미션	월수입	처우	관련서류 소지여부	주 고객
리인 (Q)*	로만	12달러 20% 6달러 10% 할당량 없음	2차 없음	520,000	1일 휴일/ 계약상 2일	외국인 등록증	미군(통금이후타국적인 클럽방문허용)
라이자 (Q)	로만	12달러 20% 6달러 10% 할당량 없음	2차 없음	520,000	1일 휴일/ 계약상 2일	외국인 등록증	미군(통금이후타국적인 클럽방문허용)
카리에 (Q)	폼폰	20달러 20% 할당량 없음	2차 없음	570,000	1일 휴일/ 계약상 2일	외국인 등록증	미군(통금이후타국적인 클럽방문허용)
맨디 (Q)	폼폰	20달러 20% 할당량 없음	2차 없음	570,000	1일 휴일/ 계약상 2일	외국인 등록증	미군(통금이후타국적인 클럽방문허용)
멜리 (Q)	폼폰	20달러 20% 할당량 없음	2차 없음	570,000	1일 휴일/ 계약상 2일	외국인 등록증	미군(통금이후타국적인 클럽방문허용)
크리스 (Q)	폼폰	20달러 20% 할당량 없음	2차 없음	570,000	1일 휴일/ 계약상 2일	외국인 등록증	미군(통금이후타국적인 클럽방문허용)

* 필리핀으로 돌아간 여성/ Q 설문에 응한 여성

플로어스 클럽에서 일하는 마에는 클럽 마마상이 여성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여성과 달리 그녀는 가만있지 않고 마마상에게 항의를 했으며 필리핀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에는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클럽주인은 그녀에게 말대꾸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지 않으면 필리핀으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녀는 용서를 빌지 않았다. 마에는 클럽일 자체를 혐오한다. 플로어스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 중 유일한 미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이가 있는 미혼모였던 다른 여성과 달리 버는 돈을 모두 고향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었다.

폼폰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항의했다. 일주일에 1만원씩 주기로 했지만 클럽 주인은 그 돈으로 여성들에게 줄 물건을 사고, 식비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폼폰 클럽의 여성들은 대부분 클럽 주인과 매니저를 두려워한다.

생활 환경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들은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거나, 돈이 있을 때는 쇼핑

을 하고, 식사를 사준다는 술손님과 외출허가를 받고 만나서 어울리기도 한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은 필리핀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살라마이다.

두레방에 오는 몇몇 여성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두레방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가, 혹은 조그만 도서관에서 필리핀 서적을 읽기도 한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2003년에 한국에 온 대부분의 여성들은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에서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들은 대부분 클럽주인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문직업가수 혹은 음악인을 증명하는 연예인등록증이 있는 여성들도 본인의 특기보다는 선정적인 춤을 출 것을 강요당한다. 현재까지 클럽 일을 하기 싫어하는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클럽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거나, 다른 클럽으로 가는 것, 이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었다. 또한 클럽주인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도 마음 놓고 신고하거나 항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고향에 자신들이 보내주는 돈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만일 이러한 여성들이 클럽의 학대나 계약불이행 등을 신고했을 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하고 비자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등의 확실한 보상책이 있다면 여성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 느끼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필리핀을 떠나 일을 한다는 생각에 들떠 계약내용을 확실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 그들은 한국인 클럽 매니저의 이름이나 클럽주소조차 알지 못한다.

필리핀 여성들은 알코올중독, 수면부족, 성병(STD), 탁한 공기로 인한 호흡기 계통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클럽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들

Q 설문지에 응답/ I(T) 인터뷰에 응답(녹음)/

* 완전히 필리핀으로 돌아감/ ** 필리핀으로 돌아감

▶ 도망친 여성의 사례 : 레이첼 *(Q, I)

레이첼(37)은 필리핀의 마닐라 출생이다. 한국에 오기 전 그녀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Abu Dhabi)에서 파출부로 3년간(1992~1994년) 일했다. 한달 월급은 150달러였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그녀는 일본인이 소유한 필리핀의 술집에서 한달에 3천 페소를 벌었고, 일본인 사장의 어린 필리핀 애인의 뒤치다꺼리를 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그녀는 한국에서 클럽에서 일했으며 세 차례 계약을 했다. 그 다음에는 동두천의 보산동과 덕거리의 클럽에서 일했다. 그녀는 클럽 일은 할만하다고 말한다. 레이첼은 한 달에 3백달러를 벌며, 그녀의 필리핀 현지 매니저는 루시 옴바스(Lucy Ombas)이다. 레이첼은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데, 한국에 세 차례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레이첼은 처음 한국 체류 후 필리핀에 돌아갔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다시 2001년 4월5일에 E-6 비자로 두 번째 한국에 들어왔다. 그녀는 의정부에 있는 수잔 클럽에서 일했으며, 이번 클럽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 업주는 자유시간에도 도망가지 못하게 방안에 가두어 두었으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굶겼다.

클럽을 도망친 그녀는 같이 도망친 여성들과 인천으로 가서 수건공장에서 일했다. 이후 많은 공장을 전전하다가 고산동에 정착하여 미군과 결혼한 필리핀여성의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했다. 2003년 8월에 파주로 가면 일자리와 노동자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며 알려주었고 지금 그녀는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며 수입의 대부분을 고향 가족에게 보낸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 : 라이자 **

라이자(26세)는 옷가게에서 일하며 제대한 미군과 결혼했다. 그녀는 로만 클럽에서 일했었다. 남편은 2003년 4월 14일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군산에 있는 클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라이자는 계약기간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의정부에서 클럽생활을 하며 남편을 만난 것이다. 남편은 라이자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의정부에서의 6개월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남편과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녀는 SOFA 비자로 입국했지만, 남편이 제대한 후 미국으로 돌아간 5월 이후에는 그녀의 한국체류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녀는 지금 비자상태를 걱정하여 남편

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해 미국비자를 취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에게 이 일은 매우 힘든 것이다. 현재 일하는 곳의 사장은 일을 열심히 하는 라이자를 매우 좋아하여 만약 5월에 미국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녀를 대신하여 보증까지 서준다고 했다. 다행히 2주 후에 미국 비자가 나왔고 라이자는 곧 미국으로 떠났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2 : 라미에 (Q, D)

라미에(25세)는 필리핀 남부의 카가얀 드 오로(Cagayan de Oro) 출신이며 기념품상점에서 일하던 넬리의 후임이다. 2001년 3월31일에 E-6비자로 입국했으며 다른 필리핀 여성들처럼 클럽 경험은 아주 없는 상태여서 클럽 일이 어떤지 예상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클럽손님들은 여성들에게 무례하게 굴었으며 클럽의 규칙 또한 엄격했다. 라미에는 고된 클럽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녀의 돈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한 달에 4백 달러를 벌었고 일에 늦을 경우 벌을 받았다. 자유시간에도 문을 잠가 놓아서 그녀는 밖에 나갈 수 없었다. 또한 클럽주인은 '먹을 것을 제때에 주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남편은 그녀가 6개월 후 클럽을 도망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

전에는 의정부에 있는 페이지 클럽에서 6개월간 일하고 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한 채 미군애인과 결혼하기 위해 클럽을 도망쳤다. 한국인 매니저 이씨는 계약사항을 위반했으니 1백만 원을 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돈을 주지 않고, 매니저에게 계속해서 독촉하면 클럽에서 시켰던 2차 등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 일 이후 매니저는 더 이상 그녀를 독촉하지 않는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3 : 블레스 (Q)

블레스(27세)는 필리핀 북부의 팜팡가 출신이며 다인 클럽에서 일했다. 그녀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클럽에서 일한 지 6개월 뒤에 캠프 스탠리에서 근무하는 미군과 결혼했다. 한번은 이민국에서 클럽에 조사를 나왔는데 그때 업주는 자기가 보관하던 블레스의 여권을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칠 때 여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 계약 위반시에 겪는 불이행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블레스는 필리핀에서 대학까지 다녔으며 한국에 오기 전 회사 비서실 직원

과 백화점 점원으로 일을 했었다. 한국에는 2001년 11월6일, E-6비자로 입국했다. 다인 클럽에서 일하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클럽주인은 항상 문을 잠궈 놓았으며 여권 등 관련서류 일체를 여성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녀가 미군과 결혼한 이유는 그것이 끔찍한 클럽생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미군은 클럽여성과 진짜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클럽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블레스는 2003년 8월에 첫아이를 출산했으며 이 후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 근방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결혼생활이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클럽생활을 더 이상 안 한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3 : 레나 (Q)

레나(26세)는 필리핀 북부의 타알락(Tarlac) 출신이다. 한국에 오기 전엔 몇 군데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한국 입국시 E-6비자로 경유 없이 필리핀에서 바로 왔으며 입국 날은 2001년 12월13일이다. 그녀는 자신을 필리핀의 '애쉬 맨 에이전시'에 소개시켜준 친구로부터 클럽 일에 대해 듣고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필리핀 매니저는 이멜다(Imelda)이다. 입국시 여권에는 실명을 기재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필리핀여성처럼 월급삭감에 동의했다.

레나가 다인 클럽에서 일할 때는 주중에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일했고, 주말에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일했다. 월급은 술 커미션 포함 48만원이었으며 숙식은 클럽에서 제공했다. 한번은 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다음달로 미뤄진 적이 있다.

클럽에서 도망치고 미군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적은 월급에다가 클럽주인이 그녀를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현재는 남편인 미군애인의 도움을 받아 도망쳤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결혼했다. 그녀는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했다. 미군가족에게 나오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레나는 브로커가 계약위반으로 70만 원을 요구하여 본인의 비자를 SOFA비자로 바꾸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4 : 도리스

도리스는 한국에 오기 전 말레이시아의 클럽에서 가수생활을 했다. 그녀는 밴드 해체 이후 한국에 왔다. 그녀는 필리핀의 팜팡가 출신이며 전 애인 사이

에서 낳은 아들이 둘 있다. 지금은 미군남편 사이에서 낳은 생후 1개월짜리 딸이 있다. 그녀는 웨인 클럽에서 일했었다. 그녀는 클럽에서 6개월의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 후 필리핀에 돌아갔었다.

필리핀에서 1년 정도 있던 중에도 현재 남편인 미군애인과 연락을 계속 했다. 결혼식은 필리핀에서 했으며 그녀가 다시 한국에 올 때는 딸과 함께 SOFA 비자로 입국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5 : 넬리

넬리(37세)는 필리핀의 사마 출신이다. 그녀는 최근에 캠프 스탠리에서 근무하는 미국인과 결혼했다.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아이들이 있으며, 최근에 이혼했다. 그녀는 그린 샵 맞은편에 있는 기념품 상점에서 일했다. 송탄에 있는 클럽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는 그녀는 미국인과 현재 살고 있으며 지금 비자는 여행자 비자이다. 비자갱신은 매 90일마다 하고 있다. 애인은 그녀와 결혼을 원하고 있지만 그녀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남편의 지배가 싫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미국인 애인은 지금 그녀의 남편이 되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6 : 엘렌 ** (Q)

엘렌(26세)은 필리핀의 라구나(Laguna) 출신으로 중국인 혈통이다. 최근 그녀는 이라크로 파병되어 근무하는 미군(32세)과 결혼했다. 한국에 입국할 때 여행자 비자로 들어온 그녀는 지금 미국비자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그녀는 비자 만기일인 2003년 8월 10일 이후에 미국비자가 나올 때까지 비자 일을 연장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필리핀보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빠르고 수월하다고 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더 쉽다고 했다. 전에는 대구의 왜관에 있는 체리클럽에서 일했다. 그녀는 천주교 집안 출신이며 고등학교 졸업 후 의류공장에서 1994년부터 한국에 오기로 결정한 때까지 일했다. 클럽 일에 대해서는 친구를 통하여 알고 있었으며, 비자를 얻기 위해 5백 페소를 썼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7 : 제사

제사는 미군과 결혼하여 1살 된 딸이 있으며, 이름은 카렌이다. 그녀는 지금

가정주부이다. 그녀 역시 클럽을 도망쳐 미군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 중 하나이며 코튼 클럽에서 일했었다. 그녀와 남편과의 사이는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미군남편은 가족보다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그녀에게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그녀의 친구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8 : 미라

미라(30세)는 마닐라 출신으로 스탠리 기지에서 근무하는 미군과 결혼했다. 그녀는 지금 SOFA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두레방에는 필리핀 독립기념식 행사를 마치고 한번 들린 적이 있다. 그때 그녀는 컴퓨터수업을 들었다. 전에 그녀가 일한 클럽은 다인 클럽이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9 : 마일라 *

마일라(23세)는 팜팡가 출신이며 필리핀에서 법적으로 혼인상태지만 서류를 위조하여 캠프 스탠리에 근무하는 미군과 결혼했다. 그녀 역시 클럽에서도 도망친 후 SOFA 비자를 취득했다. 그녀는 전에 낳은 6살된 딸을 최근 한국으로 데리고 왔으며, 남편이 제대 후 미국으로 가서 살고 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0 : 로첼리

로첼리(33세)는 필리핀의 라구나(Laguna) 출신으로 일본계 미군과 결혼하여 SOFA 비자를 취득했다. 그녀는 두레방의 컴퓨터 수업에 참가하고 싶지만 직장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녀는 지금 전화카드상점에서 일하며, 전에는 어니클럽에서 일했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도망쳐 서울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녀는 아들, 딸 두 명의 아이들이 있으며, 11살인 아들은 지금 그녀와 살고 있고, 6살인 딸은 비이콜(Bicol)에 있는 전 애인의 가족과 살고 있다. 로첼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타나 결혼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상하고 돈을 가져다주는 미군남편을 만난 것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녀는 왜 필리핀여성들이 필리핀남성과 이혼하고 미군남편과 살고 싶어는지 너무 잘 이해한다고 했다. 그녀는 필리핀을 떠나 한국의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미군과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많은 필리핀여성들은

미국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는 몇몇 필리핀 남편들은 무직이거나 약물중독이어서 여성이 아이의 뒷바라지를 모두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1 : 로라 (클럽에서 일한 경험없음)

로라는 필리핀 남부의 일리간(Iligan)출신이다.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으며 미군남편은 소개를 받아 만났다. 그녀는 2003년 9월에 첫아이를 낳았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2 : 에마 *

조사의 첫 과정에서 그녀를 만났기 때문에 얼마에게서 많은 정보는 듣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미국에서 첫아이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클럽을 도망쳐 캠프 스탠리에서 근무하는 미군과 결혼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3 : 잼 *

잼은 필리핀 북부 출신이다. 그녀는 조사가 시작된 지 2주 후에 미국으로 떠나 에마처럼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4 : 윈디

윈디(23세)는 필리핀 남부의 카가얀 데 오로 출신이다. 그녀는 8남중 막내이며,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낙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전 관계에서 낳은 두 명의 아이들이 있으며, 동두천에 있는 아메리카 클럽이라고도 불리는 스튜디오54 클럽에서 일했었다. 그녀는 6개월을 일한 후 현 남편인 멕시코인 미군과 도망쳤다. 그와 사이에서는 두 명의 아이를 낳았으며 비록 그녀는 미혼일 때 아이를 가졌어도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아이를 뭇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혼할 당시 그녀는 판타지 클럽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으며, 후에 의상 가게에서는 오래 일하지 않았다. 주인이 그녀에게 호되게 굴었기 때문이다. 최근 그녀는 캠프 스탠리 근처에 있는 전화카드가게에서 일한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5 : 콜리 (Q)

콜리(24세)는 필리핀의 누에바 에시자(Nueva Ecija)출신이며, 천주교집안 출신이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학교에서 밴드활동을 같이하던 남자친구와 결혼했다. 학교시절 그녀는 인기가 많았다고 했다. 결혼 당시 그녀는 17세였으며 아들딸 각각 한 명씩 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그녀는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주급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은 돈을 벌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친구에게 한국의 클럽 일에 대하여 듣고 에이전시를 소개 받았다. 그녀의 필리핀 에이전시는 이멜다(Imelda)였으며 애쉬 프로모션 소속이었다. 그녀는 한국에 올 때 경비를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것에 동의했으며 여권에는 실명을 기재했다. 그녀는 2002년 7월13일에 E-6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의정부에 있는 붐(Boom) 클럽에서 일했다.

붐 클럽에는 8명의 필리핀 여성이 있었으며 나중에 모두 도망쳤다. 이곳은 마마상이 여성들을 굶기고 외출허가를 전혀 내주지 않은 곳이었다. 그녀는 필리핀여성들은 친구를 만나거나 외출은 금지되었다고 했다. 콜리는 임신한데다가 클럽 여건이 최악이어서 도망쳤다. 애인은 그녀가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임을 알았지만 서류를 위조하는 데 드는 돈을 지불했고, 그들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다. 그들은 미국 대사관에서 지난 5월19일에 결혼을 했다. 콜리는 단11개월만 일하고 결혼을 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6 : 레슬리 **

레슬리(24세)는 필리핀 남부의 다바오 출신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비자가 만료되어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에서 미국으로 돌아갔다. 레슬리는 2003년 8월에 필리핀으로 돌아갔고, 필리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했다. 그녀는 미국에 있는 남편을 따라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자가 나오려면 일 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7 : 지마

지마(29세)는 23살의 미군과 결혼했다. 그녀는 마닐라 출신이다. 그녀가 일을 그만둔 이후에는 고향에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었다. 남편은 그녀에게

돈을 가져다주지도 않으면서 그녀가 일자리를 가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마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점점 남편을 두려워했고, 남편과 대화는 언제나 싸움과 고함으로 끝났다. 모든 일은 남편의 취향대로 해야 했다. 그녀는 결혼 전 붐 클럽에서 일하다가 8명의 여성들과 함께 도망쳤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8 : 개비

개비(33세)는 다바오 출신으로 다바오에서 도망친 8명의 여성 중 한 명이다. 최근 그녀는 첫 아이를 출산했으며 붐 클럽에서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했다.

▶ 미군과 동거하는 여성의 사례 : 지이타

지이타(25세)는 마닐라 출신으로 클럽에서 도망친 후 미군과 결혼해 살고 있는 필리핀여성의 아이를 봐주는 일을 했었다. 그녀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조사가 시작될 즈음에 그녀를 두 차례밖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활 환경

몇몇 결혼한 필리핀여성들은 그룹을 지어 어울리며 주로 '통잇츠(tong its)'라는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도박게임을 한다. 몇몇은 쇼핑을 하거나 남편과 클럽에 가기도 한다. 결혼한 여성들은 친구의 아이나 남편의 생일파티에 참가하기도 하고 음식장만을 도와주기도 한다. 두레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필리핀 서적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클럽을 도망친 이유로 클럽의 부당한 대우를 제시할 경우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군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 중 몇몇은 가정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 또한 언어 장벽 때문에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모든 필리핀여성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닌 반면 미군기지의 상담원은 대부분 미국인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필리핀에 아이가 딸린 여성들이 미군과 결혼했을 경우에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온다. 그때 아이를 보낼 학교가 없다. 서울외곽을 벗어나면 마땅한 교육시설이 없다. 미군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은 남편에게 돈만 많이 받아서 가족들에게 그 돈을 보낼 수만 있다면 부인으로서의 다른 권리는 크게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2) 러시아 여성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 힙크랩 클럽

: 헬렌은 러시아에서 왔다. 그녀는 가끔 두레방에 도움을 청하러 온다. 그녀는 캠프스탠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다.

: 릴리아는 23살이고 키르기즈스탄에서 왔다. 그녀는 두레방에 자주 러시아책을 빌리러 왔다. 최근 그녀의 매니저는 송탄의 다른 클럽으로 그녀를 옮기려 한다. 그러나 그녀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녀는 다음주 키르기즈스탄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 품폼 클럽

: 나디아는 품폼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녀의 계약은 2003년 9월 만료가 되었다. 그녀는 한달에 52만원을 버는데, 만일 손님과 함께 춤을 추면 그날 판 술의 20%를 가지게 된다. 처음 일하였을 때 그곳 여성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마마상에게 만일 쉬게 해주지 않으면 일

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모두는 매달 하루를 쉬게 되었다. 9월 계약이 끝난 이후에, 그녀는 미군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여 고산동에서 살고 있다.

: 마리나는 러시아 출신으로 22살이다. 그녀는 책을 빌리러 자주 왔으며 병원에 가기 위해 도움을 청하였다. 낙태를 원하여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마마상이 알면 러시아로 되돌려 보내질까 두려워하였다.

: 율리아는 러시아 출신으로 26살이다. 그녀는 러시아에서 결혼을 하여 7살 된 아들이 있다. 그녀의 미군남자친구는 결혼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러시아대사관을 통하여 러시아에 있는 남편에게 이혼서류를 보내었으나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계약은 이달 만료된다.

▶ 디바 클럽

: 알레샤는 러시아 출신으로 21살이다. 그녀는 E-6비자로 한국에 왔다. 두레방에 책을 빌리러 온다.

: 이라는 러시아 출신으로 29살이다. 그녀는 E-6비자로 한국에 왔다. 자주 두레방에 책을 빌리러 온다.

▶ 넥스트 월드 클럽

: 나자는 여름에 영어교실에 참여하였으나 두레방에 가는 것을 금지 당하였기 오지 못하게 되었다. 계약 만료 후 미군남자친구와 결혼하였다.

: 알피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다. 그녀의 계약은 이달 만료된다. 그녀는 영어교실에 참여하였으나 시간이 없어 올 수 없었다. 그러나 오지 못하는 실제 이유는 매니저가 두레방에 오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 올레샤는 23살로 4살 된 아들이 있다.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다. 그녀는 영어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군손님과 일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이야기 하였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손님에게 더 많은 술을 사도록 하여 커미션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그녀를 비롯한 클럽의 다른 여성들은 마마상에게 속아 그것이 2차인지도 모르고 미군과 나가게 되었다. 그녀는 단지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미군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자 마마상을 찾아가 돈을 되돌려 받았다.

생활 환경

대부분 클럽에서 일하는 러시아여성들은 2차를 나가도록 강요당한다. 거절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것이 일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에서 체결한 계약은 한국에 오면 거의 모두 그대로 시행되지 않으며, 미군전용클럽이지만 미군의 통금이 시작된 이후부터 그리고 미군이 부대 밖으로 출입이 금지될 때면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받고 있다. 러시아여성들은 대부분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거세고 요구가 많다고 오해받는다.

클럽에서는 보통 한달에 한번씩 쉴 수 있다. 대개의 러시아여성이 클럽의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클럽이 문을 열기 전에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자유시간에는 쇼핑을 하거나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기도하고, 때로는 친구나 남자친구와 함께 점심때부터 술을 마시기도 한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많은 여성들이 속아서 계약을 체결하여 러시아에서 계약할 때 들은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 러시아에서의 계약서는 러시아어로 씌어졌으나, 한국에서의 계약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씌어져 있다. 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완전히 다른 두개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클럽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들

▶ 도망친 여성의 사례 : 나탈리아

나탈리아는 28세로 두 아이가 있다. 그녀는 하바로브스키에서 왔다. 러시아에서는 미용사였으나 그 일을 하여서는 두 아이를 키우며 모든 청구서를 다 지불할 수 없어서 한국에 오는 모험을 하게 되었다. 전에는 군산에서 일을 하였으나 매니저가 의정부의 액티브 클럽으로 옮기게 하였다. 매니저는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자 그녀를 공항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줄 수는 없으나 여행경비는 대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공항에 그녀를 두었다. 친구가 그녀를 수원의 램프공장에 일하도록 해주었으나 한 달 이상 일해도 돈을 받지 못하였다. 공장장은 늘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였다.

그녀는 두레방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다. 수원의 이주노동자센터도 그녀를 도와주었다. 외국인 등록허가기간이었고 그녀도 불법으로 지내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한국을 떠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였다. 그녀는 미군남자친구가 있었으나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가 아무런 돈도 주지 않았기에 두레방이 러시아로 되돌아갈 비행기 표값을 지원하였다. 2003년 11월 2일 그녀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한 것에 대한 슬픔, 절망, 분노에 찬 채 러시아로 되돌아갔다. 그녀는 “러시아에서의 삶은 힘이 들지만 한국에서 이용당하고 학대당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고생하는 편이 낫다”고 말하였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 : 카샤

카샤는 고산동의 클럽에서 일하였다. 그녀는 미군과 결혼하여 최근 둘째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러시아에 있다. 정규학교에 다니는 것은 비싸기 때문에 남편이 딸을 도와 공부를 시키고 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2 : 이리나

이리나는 하바로프스크출신으로 27살이며, 11살 된 딸이 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미용사로 일하였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왔다. 그녀는 폼 클럽에서 일하였다. 계약이 끝난 후 그녀는 미군남자친구인 미키와 결혼하였다. 그녀와 딸은 지난 2003년 8월 미국으로 떠났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3 : 마샤

마샤는 액티브 클럽에서 일을 하였다. 그녀는 러시아인으로 29세이다. 그녀는 매니저와 심하게 다투었고 계약이 끝난 이후 갱신하지 않았다. 대신 22세인 미군과 결혼하여 고산동에 살고 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4 : 나탈리

나탈리는 32세이다. 6개월간의 계약이 끝난 이후에 라틴계미군과 2003년 7월 27일 결혼하였고, 플로어즈 클럽에서 일했었다. 최근 그녀의 13살 난 아들이 러시아에서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녀는 둘째아이를 임신 중이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5 : 빅키

빅키는 23세로 크라운 클럽에서 일하였다. 미군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 그녀는 크라운 클럽에서 바텐더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녀는 여름에 영어교실에 참여하였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6 : 메리암

메리암은 22세이다. 그녀는 캠프 스탠리에 있는 미군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책을 빌리러 두레방에 자주 찾아온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7 :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는 24세로 아이와 혼자 지낸다. 남편은 최근 이라크로 파견 나갔고, 그녀는 미국이민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8 : 율리아

율리아는 26세로 동두천에서 일했었다. 클럽에서 일하는 동안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등 심한 처벌을 받았다. 그녀는 2003년 3월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그녀는 러시아에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3살 된 딸이 있다. 그녀는 27살 된 미군을 만났는데, 불과 한달쯤 만났을 때 결혼을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월급을 받자 클럽을 도망 나왔다. 도망치기 전 자신의 물건을 남자친구의 집으로 옮겨 놓았다. 마마상과의 관계는 좋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렀을 때 매니저가 기다리다 그녀를 잡아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가두어버렸다.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러시아대사관으로 도망가서 신고하고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임신을 하였고 미군과 결혼한 다른 러시아 여성들의 아기를 돌보는 일을 시간제로 하고 있다. 그전에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하던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었으나 결혼하기 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다. 그녀의 비자는 만료되어 한국에 더 있으려면 비자를 연장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던 유일한 선택은 잘 알지도 못하는 미군과 결혼하는 것이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9 : 엘레나

엘레나는 액티브 클럽에서 일하였다. 미군과 결혼한 그녀는 최근 둘째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아들 키털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그녀는 정규학교를 다니는 것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시키려고 아들을 두레방으로 데리고 왔다. 옷을 사기 위한 간단한 영어도 그녀에게는 어려운 것이다. 그녀는 러시아에 있는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위한 장난감이나 옷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0 : 마리에

마리에에는 23세이다. 그녀는 최근 세 번째 아이를 유산하였다. 10개월일 때 유산하게 된 것이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피세포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녀는 퍼스트 클럽에서 일하였다.

마리에에는 한국에 두 번째로 왔다. 첫 번째 한국에 왔을 때 끔찍한 일을 경험하였고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그녀가 러시아대사관을 데리고 가서 고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러나 일자리가 절박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올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 제니에

제니에는 25세로 한국인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네일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으며, 책을 빌리러 두레방에 자주 찾아왔다.

▶ 외국인과 동거하는 여성의 사례 : 티나

키르기스스탄출신의 티나는 바비 클럽에서 일하였다. 그녀는 그 클럽에서 도망을 한 첫 여성이다. 그녀는 두레방의 도움을 받아 쉼터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한달을 머문 후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다.

생활 환경

쇼핑을 하거나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러시아 여성들이 클럽에서 도망을 하면 그들은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여성들은 클럽에서의 생활이 무척 고되더라도 계약서대로 이행하는데, 러시아에서 한번 계약을 하면 법적으로 이행을 해야만 한다고 배우기 때문이다. 클럽의 환경이 참을 만하면 대개의 여성들은 그대로 지내기를 원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일자리가 대안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러시아여성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카드나 그 외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한 한국에 있는 마피아를 두려워하여 신고하지 못한다. 더욱 어려운 것은 러시아대사관 이외에, 시민단체에서 이들 여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러시아인 상담원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3) 한국 여성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 박연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을 둔 박씨는 남편의 구타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온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이보그 클럽에서 마마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남편과 이혼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아직도 남편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편이 박씨 앞으로 진 빚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늘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갈 준비를 해주므로 피곤하며 건강이 좋지 않다. 두레방에는 클럽 일에 대한 상담과 아이들 교육문제에 대한 상담으로 자주 들른다.

▶ 김우영

원터 클럽에서 마마상으로 일하는 김씨는 고혈압과 심장병과 공항 장애 등의 지병이 있으며,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클럽일로 늘 피곤하다. 다른 일을 하고 싶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며 공항장애로 버스를 타고 동네 밖으로 나가는 것도 김씨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두레방에 자주 들러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며 가끔 미술치료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 이미경

영어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루비 클럽의 제한으로 두레방에 그리 자주 들르지는 못한다. 이씨가 일하는 루비 클럽은 2차 강요를 많이 하고 복잡한 2차 계산법으로 여성들의 돈을 심하게 착취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클럽 주인이 계산한 대로 그냥 받으며 생활한다.

▶ 최지현

루비 클럽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며, 클럽의 제한으로 잘 돌아다니지 못한다. 가정주부로서 아이들 두 명을 키우다 성폭행을 당해 이곳에 오게 되었으며 아이들을 만나러 집에 가지는 못하는 편이다. 가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레방 들러서 상담을 한다.

클럽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 : 김초아

비교적 젊은 20대의 김씨는 17세부터 거의 10년 동안 한국인 성매매지역과 기지촌 지역을 돌며 일을 했다. 사파이어 클럽에서 춤을 추기도 했던 김씨는 올 8월에 사귀던 미군과 결혼을 했다. 현재 미국비자 수속중이며, 수속이 끝나고 남편이 미국으로 먼저 들어가면 김씨는 한국에 잠시 더 머물 생각이 다. 남편은 내년 초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곧 이라크로 떠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미국에 가기 전 한국에 머무는 동안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을 계획이 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2 : 유나영

올 가을 루비클럽여성들 4명이 주인의 2차 강요와 임금체불 문제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건에 함께 하게 되어 더 이상 클럽에 있지 못하고 클럽을 도망 나오게 되었다. 11월에 사귀던 미군과 결혼을 하였으며 현재 비자 수속중이다. 현재까지 두레방에 계속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의논하며 지원받고 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3 : 진차희

미군장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어가며 간다. 운영하던 바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간간히 여러 일들이 생기지만 잘 지내는 편이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4 : 이미숙

결혼한 지 오래되어 미군남편과 잘 살고 있으며 경영하는 가게도 그런대로 잘 되는 편이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5 : 정현아

이제 아기가 돌을 지나 제법 고집도 부리고 잘 걸어 다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은 오산기지에 근무하므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으며 올 여름 미국에 있는 남편의 가족들에게도 다녀오는 등 관계도 좋은 편이다.

클럽 외에 다른 일을 하는 여성들

▶ 조미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 대한 상담이 많다. 올 봄엔 아이를 위해 동네 피자 가게에 일자리를 얻어 일을 하고 있다. 아이와 가까이 있지만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그전에 멀리 다른 동네로 일을 다니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다.

▶ 이영희

계속 동네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음식점 일이 너무 바빠서 두레방에 는 예전처럼 자주 못 내려오지만 일이 있을 때 가끔씩 들른다. 여전히 발목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 많이 서있거나 걸어 다니는 것이 무리가 된다. 현재 일하 는 가게는 2년이 다 되어가서 이제 일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현재 주인이 가게를 내놓은 상태라 가게가 팔린다면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 김원희

4년 전부터 클럽일을 정리하고 가게를 시작한 김씨는 올 가을 또 하나의 가게를 차렸다. 가게들은 여전히 잘 되는 편이지만 두개의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매우 피곤해 한다. 가끔 아이들을 보는 게 낙이 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꾸려 나간다. 두레방에 자주 들러 자신의 신상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가게 운영이나 애인문제, 아이들 문제가 주된 상담거 리이다.

▶ 최경희

클럽일을 정리하고 3년 동안 음식점에서 일을 한 최씨는 올 11월에 가게를 인수하여 음식점을 차렸다. 두레방의 격려에 용기를 냈다는 최씨는 작년에 결 혼한 남편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자신의 신변에 중요 한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레방에 들러 상담을 한다.

▶ 김미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로 생계를 꾸려가던 김씨는 올 11월 두레방 의 알선으로 공공근로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일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고 생 계비를 지원받는 것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클럽생활이 나 생계비 지원으로 받았던 돈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정기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김씨는 잘 적응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두레방에 들른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생활하는 여성들

▶ 하수영

80세가 넘은 독거노인이다. 작년 이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 늘 많은 병 원에 다니는 편이다. 생계비 지원받는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고 두레방에 자주 들르는 편이다.

▶ 김미진

아직 60세가 안되어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골다공증, 빈혈, 관절 등 많은 병으로 몸이 많이 아파 어떤 노동이든 1시간 이상을 할 수 없다. 그래 서 공공근로도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나오는 돈 18만원으 로는 방세 10만원과 병원비, 생활비를 쓰기란 턱없이 부족하다. 올 12월에 두레방에서는 김씨의 생계비 조정 신청을 도왔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최지나

이제 60세가 막 넘었으므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나 관절이 많이 아 파 손목과 발목을 써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 손목과 발목은 계속해서 김스를 하게 될 때가 많다. 올 11월 생계비지원자격 연장신청을 도왔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한국여성들의 경우 건강문제를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각자의 의료보 험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약을 받지만 매일 또는 자주 병원진료를 받아야 되 는 여성들은 그 비용도 부담이 된다. 생계비 지원을 안받더라도 1종 의료보 험이라면 병원비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또한 클럽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들보다 건강이 많이 좋지 않고 노동 능력이 떨어진다. 나이와 상관없이 필요 한 여성들에게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동두천/턱거리

1) 필리핀 여성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하빗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 중 애니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필리핀과 쿠웨이트에서 상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재니스는 일본에서 예술홍행비자로 일했으며, 레니는 사이판에서 두 차례 클럽 웨이트리스로 일한 경험이 있다. 마조와 엘라는 고향 필리핀에서 상점 점원으로 일했다. 레미와 말리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설문지에 답한 사람 중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한명이었다. 이들을 한국의 클럽으로 알선해준 사람은 바비이며, 마닐라의 산타크루즈(Santa Cruz)에 있는 그 알선업체의 이름은 VJ 프로모션(VJ Promotion)이다.

현재 애니와 말리는 하빗 클럽을 도망친 상태이며 그들은 지금 미군 남자 친구들 집에 피신해 있다. 왜냐하면 클럽주인이 그들이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내고, 또한 출산을 위해 입원해 있던 다른 필리핀 여성을 돌보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다운레인지(동두천 클럽촌의 좁은 거리를 일컫는 말)를 따라 쫓아온 클럽주인에게 한 차례 붙잡혀 그 길로 애니는 추방되었고 말리는 지금도 그녀의 애인과 살고 있다. 말리는 현재 임신 중이고, 둘은 서로 결혼을 원하고 있지만 말리의 비자 및 서류가 모두 매니저인 조씨에게 있으므로 어려운 실정이다.

말리의 남자친구는 이 두 여성이 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망을 칠 수 있었는지 전자우편으로 자세히 말해 주었다. 그는 또한 턱거리의 클럽들이 예전의 퇴폐적인 쇼와 변태적인 영업행태를 다시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 메일은 필리핀 대사관에 있는 노동관리부서에 그대로 보내졌으며, 대사관으로부터 클럽업주가 종업원 여성들에게 2차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사실을 조사하여 처벌하겠다는 답장이 있었다.

<표12> 동두천 클럽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이름	클럽	나이	한국 입국일	최종학력	출신지
애니(Annie) (Q)	하빗(Hobbit)	26	2003년5월9일	대학교	마닐라(Manila)
엘라(Ella) (Q)	하빗	22	2003년5월9일	초등학교	팜팡가(Pampanga)
마르조(Marjo) (Q)	하빗	20	2003년5월9일	고등학교	팜팡가
레미(Remy) (Q)	하빗	26	2003년5월9일	고등학교	카가얀 데 오로 Cagayan de Oro
재니스(Janis) (Q)	하빗	26	2003년5월7일	고등학교	다바오(Davao)
레니(Leni) (Q)	하빗	24	2003년5월9일	대학교	다바오
말리(Marley) (Q)	하빗	23	2003년5월9일	고등학교	불라칸(Bulacan)
니키(Nickki) *	블랙뱅크(Black Banks)	-	-	-	-
아키(Archie) *	블랙뱅크	-	-	-	-
리비(Libby) *	뉴올리언스(New Orleans)	34	-	고등학교	라구나(Laguna)
에미(Emi) *	머니(Money)	-	-	고등학교	세부(Cebu)
밤비(Bambi) *	머니	-	-	고등학교	세부
아이리스(Iris) *	머니	-	-	고등학교	세부
말렛(Marlet) *	플랜터스(Planters)	19	-	-	라구나
아미(Amie) *	플랜터스	20	-	-	마닐라
마스(Mars) *	플랜터스	26	-	-	다바오
로시(Rosie) *	플랜터스	22	-	-	다바오
진(Jean) *	스노위(Snowy)	-	-	-	-
넬리(Nelle) *	스노위	-	-	-	-
수(Sue) *	스노위	-	-	-	-
레슬리(Leslie) *	스노위	-	-	-	-
미나(Mina) *	스노위	-	-	-	-
미미(Mimi) *	브라운존스(Brown Jones)	23	-	-	-
몰리(Molly) *	브라운 존스	24	-	-	-
마-앤(Ma-anne) *	사나두(Xanadu)	-	-	-	-
미치(Mitchy) *	사나두	-	-	-	-
애일린(Aileen) *	사나두	-	-	-	-
라미(Rami) *	사나두	-	-	-	-
아리스(Aries) *	로얄(Royal)	-	-	-	-
실리(Cilly) *	로얄	-	-	-	-
마우이(Maui) *	로얄	-	-	-	-

* 인터뷰/ Q 설문지에 응한 여성/ - 정보없음

<표13> 근무환경 및 생활수준

이름	클럽	술판매커미션 (할당량)	2차커 미션	월수입	처 우	관련서류 소지여부	주 고객
애니(Annie) (I)	하빗	10달러 20% 150병/1주	-	520,000	-	없음	미군(통금이후타국 적인클럽방문허용)
엘라(Ella) (I)	하빗	10달러 20% 150병/1주	-	520,000	-	없음	상동
마르조 (Marjo) (I)	하빗	10달러 20% 150병/1주	-	520,000	-	없음	상동
레미(Remy) (I)	하빗	10달러 20% 150병/1주	-	520,000	-	없음	상동
재니스(Janis) (I)	하빗	10달러 20% 150병/1주	-	520,000	-	없음	상동
레니(Leni) (I)	하빗	10달러 20% 150병/1주	-	520,000	-	없음	상동
말리(Marley) (I)	하빗	10달러 20% 150병/1주	-	520,000	-	없음	상동
니키(Nickki) *	블랙뱅크	20달러 3,400	2차 없음	520,000	-	-	-
아키(Archie) *	블랙뱅크	20달러 3,400	2차 없음	520,000	-	-	-
리비(Libby)**	뉴올리언스	-	-	-	-	-	-
에미(Emi) *	머니	-	-	-	-	-	-
밤비(Bambi) *	머니	-	-	-	-	-	-
아이리스(Iris) *	머니	-	-	-	-	-	-
말렛(Marlet) *	플랜터스	-	-	520,000	-	-	-
아미(Amie) *	플랜터스	-	-	520,000	-	-	-
마스(Mars) *	플랜터스	-	-	520,000	-	-	-
로시(Rosie) *	플랜터스	-	-	520,000	-	-	-
진(Jean) *	스노워	-	-	-	-	-	-
넬리(Nelle) *	스노워	-	-	-	-	-	-
수(Sue) *	스노워	-	-	-	-	-	-
레슬리(Leslie) *	스노워	-	-	-	-	-	-
미나(Mina) *	스노워	-	-	-	-	-	-
미미(Mimi) *	브라운존스	20달러 4,000	-	520,000	-	-	-
몰리(Molly) *	브라운존스	20달러 4,000	-	520,000	-	-	-
마앤(Ma-anne) *	사나두	20달러 4,000	-	450,000	-	-	-
미치(Mitchy) *	사나두	20달러 4,000	-	450,000	-	-	-
에일린(Aileen) *	사나두	20달러 4,000	-	450,000	-	-	-
라미(Rami) *	사나두	20달러 4,000	-	450,000	-	-	-
아리스(Aries) *	로얄	10달러 2달러	-	520,000	-	-	-
실리(Cilly) *	로얄	10달러 2달러	-	520,000	-	-	-
마우이(Maui) *	로얄	10달러 2달러	-	520,000	-	-	-

틱거리에 있는 R클럽에서 일하는 세 명의 여성들, 아리스, 실리, 마우이는 의정부의 P클럽에서 일했었다. 그 클럽은 퇴폐적인 쇼와 성매매를 강요하여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전에 세 여성들은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 후 필리핀으로 돌아갔다가 일거리를 찾지 못하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BB클럽에서 일하는 네치와 아치는 이번이 한국클럽에서 일한 것이 두 번째이다. 이들의 매니저는 필리핀의 VJ 에이전시이며 두 여성의 계약기간은 2003년 8월까지이다. 네치는 작년에 NBA 클럽에서 일했었는데 그곳은 문제가 많은 클럽이었다. 그녀는 올해 일하는 클럽이 NBA 보다 훨씬 낫다고 말한다.

로시는 이번에 한국에 두 번째 와서 PL클럽에서 일하고 있다. 2년 전인 2001년에는 X클럽에서 일했으며 계약만료 후 2002년에는 필리핀에서 지냈다. 필리핀에서 그녀는 미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남자친구에게 문제가 생긴데다가 이라크전쟁 때문에 부대를 떠나면서 결혼은 하지 못했다. 다급해진 로시는 E-6비자로 한국을 두 번째 방문해서 지금 PL클럽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클럽 일을 그만두면 비자에 문제가 생겨 한국 체류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약서에 서명한 대로 첫 3개월간의 월급은 보증금 형식으로 은행계좌에 묶인다. 클럽을 도망치지 않으면 3개월 치의 월급을 돌려주며, 로시는 작년에 처음 일한 클럽에서 필리핀으로 돌아갈 때 돈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었다.

X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마앤, 미치, 에일린, 라미는 필리핀 대사관으로부터 그들이 맺은 계약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얘기했다. 또한 대사관측은 업소주인이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는 부당한 압력이 있으면 대사관에 신고하라고 이야기해주었다고 했다. 여성들은 본인의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6개월의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하는 지금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 식비는 따로 받지 않으며, 대신에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장을 같이 봐온다. 외식을 하고 싶을 때는 사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들의 매니저는 A프로모션이며, 나중에 필리핀으로 돌아갈 때 돈을 뽑아 갈 것이라며 현금지급카드를 가지고 있다.

M클럽에서 일하는 아이리스는 이곳에서 일하는 클럽 여성들은 밖에 나가 식사하거나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외식을

하려면 클럽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M카페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HP식당에 가려면 업주 몰래 빠져나와야 하는데, 업주가 가지 못하게 한 장소에 가면 벌을 받기 때문이다. M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M카페 이외의 장소는 모두 출입이 금지된 듯 보인다.

S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진, 넬리, 수, 미나는 PL클럽에서 6개월간 일했다.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여성들이 상담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또한 실제 클럽의 생활을 전부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 보인다. 필리핀 여성들은 본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경멸 혹은 멸시의 대상이 될까봐 걱정 했고, 업주나 클럽매니저에게 조종당하기만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또한 클럽 일을 그만두었거나, 미군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여성들에 비해 현재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친분을 쌓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웠으며, 시간이 걸린다. 몇몇 여성은 누구를 믿고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은 매니저들이나 업주들은 사업에 손해가 된다면 필리핀 여성들을 버릴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생활 환경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들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쇼핑을 하거나 밥을 사주는 클럽손님들을 만나기도 한다. 외출 허락을 받았을 때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낸다.

앞서 서술했듯이, M클럽의 필리핀 여성들은 업주의 눈에 잘 띄는 M카페 이외의 장소에는 갈 수가 없다. 자유시간에 외출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의심 많은 마마상들은 밖에 나가 있는 여성들에게 항시 전화를 한다. 필리핀 여성들이 도망쳤을 경우에는 클럽주들은 가장 먼저 HP식당 주인에게 여성들의 행방을 물어본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2003년에 한국에 온 대부분의 여성들은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에서 그들이 체결한 계약서의 조건들을 클럽주인들이나 매니저들이 다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속여서 계약한 전형적인 사례들로는, 1) 계약상 한달에 두 번 쉴 수 있으나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휴가를 허락한다. 2) 식비는 일주일에 한 여성당 1만원~1만 5천원씩 주기로 되어 있으나 마마상은 여성들에게 직접 돈을 주기보다는 여성들을 데리고 직접 물건으로 사준다. 이것은 그들이 식품을 사고 사용하는 것을 직접 조절한다는 의미이다. 3) 여성들이 마마상에게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돈도 주지 않고 돌려보내겠다고 겁을 주고 있다. 4) 몇몇 클럽들은 두레방에 여성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5) 몇몇 클럽들은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강검진을 석달에 한 번씩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여성들 스스로 지불하도록 한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고 외국인등록증만 지니고 있었다. 이 여성들이 ARB(연예인등록증)에 등록된 프로그수이거나 밴드 멤버들이라고 진술된 경우에도 단지 ARB조건들에 진술된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하고 있으며 얇은 옷을 입고 야한 춤을 추도록 요청받았다.

현재로서는 클럽의 규정을 좋아하지 않는 여성들이 오직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필리핀으로 되돌려지거나 다른 클럽으로 옮기는 것뿐이다. 클럽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인권침해들도 보고 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여성들은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여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나 다른 비자를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의 계약을 위반하는 폭력이나 여러 형태의 성폭행들이 보고될 것이 확실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들은 단지 일을 얻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기를 원했을 뿐 그들이 서명한 계약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인 매니저들의 이름이나 그들이 서명한 주소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클럽 내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은 알콜 중독이라든가 심한 담배연기와 수면부족 등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클럽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들

▶ 도망친 여성의 사례 : 프레스시 *(Q), (I)

프레스시(27세)는 필리핀의 카가얀 드 오로(Cagayan de Oro) 출신 여성이다. 그녀는 전에 동두천의 G클럽에서 일했다. 주말에 미군 귀영 및 통금시간이 되면 민간인 손님을 받기 시작한다. G클럽에서 그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일하고 이어서 A클럽에서는 오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 그렇게 해서 그녀가 받는 돈은 10달러짜리 술 한 병당 2천원, 150달러짜리 2차를 나갈 경우 3만원(현금으로 안주고 술과 바꿀 수 있는 티켓 값으로 지급된다), 그리고 한달에 47만 5천원의 월급을 받는다. 일주일 식비는 그룹당 2만원이다. 그녀는 2001년 3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년 후인 2002년 5월에 미군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클럽에서 도망쳤다.

클럽을 나온 이유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다. “클럽 생활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전 일을 너무 긴 시간 많이 했고 특히 주말에는 다른 클럽에서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어요. 전 L.A. 클럽에서 미군 손님을, A클럽에서는 통금시간 후에 클럽에 오는 아시아인 손님을 받았어요. A클럽에서는 새벽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약혼자 비자를 받아 2003년 9월에 미국으로 떠났고 지금은 결혼하여 미국의 조지아(Georgia)주에서 살고 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 : 엘리 (Q), (I)

이슬람 신자인 엘리(25세)는 필리핀 남부의 다바오(Davao)의 타굼(Tagum)시 출신이다. 그녀는 동두천에 있는 NW에서 일했으며 업주가 그녀에게 클럽에서 춤추게 시키자 클럽에서 도망쳤다. 업주의 요구가 있는 지 8개월이나 지난 후지만 엘리는 그것이 클럽에서 도망친 이유라고 한다. 그녀는 같은 클럽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과 함께 도망쳤다. 후에 그녀는 4개월 동안 공장에서 일했으며, 미군 남자친구의 집에서 기거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엘리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엘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엘리는 우연히 미군남자친구와 결혼한다고 말했다. 엘리는 아홉 남매 중 첫째 딸이다. 아버지는 그녀가 13세 때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

았다. 아버지가 떠난 후 엘리는 어머니를 도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바오에서 조그만 수입품 상점을 했다.

그녀는 2003년 7월에 결혼했으며 캠프 호비 근처에 세를 들어 살고 있다. 그녀의 남편(27세)은 캘리포니아 출신이며 캠프 호비에서 근무하고 있다. 엘리는 제왕절개 시술로 아들을 낳았다. 당시 아이의 상태는 자연분만을 하기에 위험했기 때문이며, 수술은 10월 28일에 했다. 그녀는 출국하지 않은 채로 SOFA 비자를 받았으며 미국으로 이민 갔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2 : 미니

미니는 필리핀의 누에바 이치자(Nueva Ecija) 출신으로 미군과 결혼했다. 미군과의 결혼 전에 그녀는 전 남편과 사별했고, 아이가 세 명 있었다. 그녀는 동두천에서 전화카드판매원으로 일했으며, 그녀의 아이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 포기했다. 그녀의 아이들은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 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3 : 리이마

리이마는 미군기지 안에서 연주하던 밴드 멤버이다. 그녀는 팜팡가 출신이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8살짜리 아들이 있다. 그녀는 캠프 호비에서 근무하는 미군과 결혼했고, 지금은 기지 안에 있는 클럽에서 DJ로 일한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4 : 라마

라마는 동두천에 있는 갤럭시 클럽에서 일했으나 한달 뒤 미군과 결혼하기 위해 클럽을 도망쳤다. 그녀의 남편은 캠프 호비에서 일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다. 그녀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세 명의 아이들이 있으며 남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그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동두천에 있는 혼혈아를 위한 학교에 입학시켰고 남편은 등록금을 내주려고 한다. 세 명 외에도 지금의 미군 남편 사이에서 낳은 한명의 아이가 더 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5 : 로리

필리핀 세부(Cebu) 출신인 로리는 마닐라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했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 2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권 고위인사들의 파

티에서 서빙을 했었다. 그녀는 왕궁에서 열리는 연회를 준비하기도 했다. 로리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8살짜리 아들이 있으며, 그녀는 미국 이민 길에 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아들을 먼저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자 한다. 현재 그녀는 현 미군 남편 사이에서 가진 아이의 출산 일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남편이름은 EP이고 오레곤(Oregon)주 출신이다. 그는 한번 이혼 경험이 있으며, 미국에 12살짜리 딸이 있다. 그는 한국 내의 미군범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을 상부관리들이 덮어주는 것보다 확실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6 : 리바 (Q)

리바는 17세 때 가짜여권으로 한국에 왔다. 그녀는 지금 20세로 23세인 캠프 케이시에서 주둔한 미군과 결혼했다. 그녀는 필리핀 중앙의 레이테(Lecte)에서 왔는데 가족들은 가톨릭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녀가 가장 막내이고 부모는 그녀가 어릴 때 별거했다. 그녀의 엄마는 다른 남자와 살았는데 가족들은 각각 헤어져 살아야 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다.

2000년 6월 1일 이전에 그녀는 마닐라 남쪽 카비테(Cabite)에 있는 전자공장에서 일했는데 한달에 6천페소를 벌었다. 한국에 관해서는 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마닐라시내의 라스 피나스(Las Pinas)에 있는 송출업체에 소개되었고 매니저 중 정씨와 이씨만 한국사람이었다. 그녀는 한국 오는 것에 아무런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모든 비용은 한달 치 월급에서 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동두천지역의 PS클럽에서 일했다. 그녀는 단지 4개월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마마상의 대우를 참기 힘들어서였다. 마마상은 자주 욕을 해댔다. 이 클럽은 식사비를 주시 않았고 숙소도 매우 나빴다. 또한 한 달에 350잔의 주스를 팔아야만 했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녀 달 만에 도망쳐서 6곳의 다른 공장들을 전전하며 일하였다. 그러나 관리자가 그녀에게 욕설을 해대서 공장들을 자주 옮겼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필리핀으로 미군친구와 돌아갔다. 그들은 필리핀에서 결혼했고 2003년 8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파비자로 들어왔으며, 그녀의 남편은 최고의 남자친구였다. 그러나 그는 리바와 1년간 함께 지내다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돌이켜보면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집안일을 거들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그가 결혼한 이유가 결혼한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라고 지속적으로 농담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 그녀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 옆의 전화카드판매 가게에서 일하게 됐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7 : 물리 (Q), (I)

물리(26세)는 필리핀 라이자(Riza, Rizal) 출신으로 모국에 4살 된 아들을 두고 있다. 그녀의 가족은 가톨릭 신자들이며,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면서 필리핀 남성을 만나 결혼했다. 그녀는 2001년 6월 25일에 홍콩을 거쳐서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입국 당시 비자는 E-6였다. 그녀는 친구를 통해 클럽 일에 대하여 듣고 직접 송출업체에 찾아간 경우이다. 필리핀에서 그녀가 찾아갔던 송출업체는 탑 어드벤처(Top Adventure)였으며 한국에서는 아낙 프로모션과 계약했다. 그녀를 담당했던 한국인 알선업자는 정씨였으며 물리는 여권에 실명을 기재했다.

물리는 텍거리에 있는 시카고 클럽에서 일했었다. 그녀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도중에 클럽에서 도망쳐 파주에 있는 칫솔 공장에서 몇 개월간 일했다. 공장 일을 그만두고 그녀는 텍거리에 돌아가 미군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물리는 상점판매원, 전자회사 직원 등 직장을 두 번 옮겼다. 그녀는 한국에서 월드컵 기간에 있었던 사면기간인 외국인 노동자 등록기간에 자신의 비자를 노동자 비자로 바꾸었고, 만료기간은 2004년 3월 31일이다.

그녀는 클럽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녀는 한국인 손님의 거친 행동이 싫었다(심지어는 미군조차도 클럽에서 그녀를 거칠게 다루었다고 한다.) 물리는 클럽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싶어 한다.

물리는 필리핀에서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이지만 한국에서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중요한 서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미군남자친구와 결혼할 마음의 준비와 서류상의 준비도 되어 있지만, 파주에서 일을 그만두고 텍거리로 남자친구와 들어와 같이 산 이후로 남자친구는 자신에게 마음이 떠났다고 느꼈다.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방을 마련해주었지만, 거의 오지 않았다. 그래서 물리는 클럽시절 손님이었던 다른 미군과 사귀어 살고 있다. 지금 만나는 미군 또한 약혼한 필리핀 여성이 있는 상태였다. 두 번째 미군에

인은 그녀에게 매우 잘해준다. 그들은 최근인 지난 11월 결혼했으며, 물리는 SOFA 비자를 취득한 상태이다. 물리는 휴가기간에 필리핀에서 돌아가서 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예정이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8 : 지나

지나는 남부 필리핀 지역 다바오에서 온 23세 여성이다. 집안은 가톨릭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에 오기 전 아무런 직업이 없었다. 그녀는 전 남자와의 사이에 딸이 있었으나 한국에 있을 동안 경련성 질환으로 죽었다. 클럽 일은 한 친구를 통해서 배웠다. 그녀의 친구는 필리핀의 다바오 시에 있는 스타 프로모션을 소개했다. 다바오 시의 필리핀 업체는 봉(Bong), 조니아(Zonia), 보비(Bobby)였다. 그녀는 여권을 위해서 250페소를 지불했고 나머지 비용은 송출업체에서 떠맡았다.

그녀는 2001년 E-6 비자로 한국에 곧바로 왔으며 진짜 이름을 비자에 썼다. 그녀는 동두천 X클럽에서 일했고, 2002년 2월 클럽에서 도망쳤다. 그녀는 단지 석 달 일하고 도망쳤는데 월급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월급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매니저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클럽을 도망친 이유는 클럽규정이나 해야할 일들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1) 하룻밤에 100잔의 음료를 팔도록 요구했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외출금지 되었다. 이것은 음식과 자유시간을 금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녀는 VIP룸에 들어가도록 강요받았는데, 이것은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20분 또는 30분간). 3) 여성들의 침실들은 VIP룸으로 사용되었다. 4) 식사비는 항상 늦었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음식을 사야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5) 그녀는 얇은 옷들을 입고 무대에서 춤을 추도록 강요받았다.

지나가 클럽을 떠났을 때, 남자친구는 그녀를 위해서 방을 빌렸고 같이 살았다. 그녀는 임신할 때까지 일하지 않았으며, 2003년 6월 아들이 태어났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5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재정을 충당한 듯 보이지만 그는 그녀의 친구들 앞에서 욕설을 해댔으며 문제를 느끼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23세로 캠프 호비에서 일하며 북캐롤라이나주에서 왔다. 그는 첫 결혼 후 이혼을 했으나 아직 이혼서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지나와 결혼에 어

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최근에 법적으로 결혼했고 소파비자를 가졌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9 : 바니스(Q)

바니스는 남쪽 민다나오의 다바오로부터 온 27세 여성이다. 그녀는 1976년 7월 14일 태어났다. 그녀는 텍거리의 X클럽에서 일했다. 2003년 1월 29일 한국에 도착했다. 그녀는 한국인 송출업자인 안씨로부터 6개월간의 계약이 끝났다. 그녀는 캠프 호비의 미군과 결혼했는데 그는 22살이고 2003년 8월 클럽을 떠난 이후 동거하고 있다.

그녀가 계약을 갱신한 이유는 만약 그녀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필리핀에서 그녀와 같이 일하러 온 9명의 여성들이 돌려보내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동료들을 생각하여 일을 해서 돈을 벌고자 했다.

2003년 7월 29일 그녀와 동료들은 송출업자들로부터 X클럽에서 나왔는데 클럽주인이 7월분의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송출업자의 집에 머물다가 클럽주인에게 여성들의 월급을 지불하라는 협박과 압력으로 월급을 받았다. 2003년 7월 30일 그녀와 동료들은 다시 일하기로 되어 X클럽으로 되돌려졌다.

현재 그녀는 전화카드판매가게에서 일한다. 그녀의 매니저는 지금도 계약 끝난 직후 미군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한다. 매니저는 다른 6명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한다. 그녀의 동료들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더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녀는 갱신을 강요받고 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0 : 메테

메테는 필리핀 사마르로부터 온 31세 여성이다. 그녀는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 사람과 결혼했다. 그녀의 남편은 필리핀의 미군대와 결합했고 결국 미국으로 갔다. 그가 미국에 있을 동안 메테와 그 두 아들은 필리핀에 있었다. 남편이 2002년 10월 한국으로 임명 되었다.

그녀는 2000년 5월 한국에 왔고, 그 때 셋째 아이를 임신중이었다. 2001년 6월 두 아들은 그녀를 따라왔고 셋째 아이는 2001년 10월 태어났다. 남편은 원래 캠프 호비의 S5부대였다. S5부대는 미군들의 안전을 위해서 클럽을 조사하는 부대이다.

2003년 3월 남편은 미국시민권을 얻어서 지금은 미국인이다. 메테와 아이들은 미국에 이민비자를 신청했으나 그녀의 출생등록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서류가 아직도 미결상태로 있다.

그녀의 아이들의 이민비자는 신청했지만, 그녀 것은 안 되어서 그녀는 아이들과 미국가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승인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 학교 보내는 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을 벗어나서 남편이 근무하는 지역의 캠프 주변에는 학교시설이 없다.

남편은 2003년 12월 한국을 떠나며 그녀와 아이들은 아직 한국에 있다. 최근 그녀는 기지 안에 한 가게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요리사와 카운터로 일한다. 그녀의 소파비자는 2003년 11월 8일 만기가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ACS로 가서 이민비자를 허가받을 때까지 한국생활을 연장하라고 말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1 : 마우이

마우이는 클럽에서 일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일하기를 원치 않았고, 미군 남자친구가 계약료를 대신 지불해주어서 클럽 일을 그만 둘 수 있었다. 그녀는 필리핀으로 돌아갔으며, 전 애인 사이에서 낳은 각각 7세, 5세 인 아이들이 있다. 그녀는 계약료를 지불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이유는 그녀의 동생 또한 한국으로 클럽에서 일하려고 올 예정인데 그녀의 문제가 동생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2 : 이올리

이올리(28세)는 필리핀의 네그로스(Negros) 출신이며 최근에 미군과 결혼했다. 고향에는 어머니와 그녀의 딸이 함께 살고 있고, 그녀는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올리의 서류에 이름이 부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딸의 한국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3 : 라니

라니(23세)는 지난 2월에 필리핀의 비이콜(Bicol)에서 미군과 결혼했다. 남편은 훈련이 있는 2달 동안 세들어 있는 대신 필리핀으로 돌아가 있으면 돈을 보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 있겠다고 제안을 거절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4 : 줄리

줄리는 필리핀에서 온 35세 된 여성이다. 그녀는 11년간 미국에 있었으며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필리핀인 군인이었다. 첫 남편과의 사이에 그녀는 두 아들이 있다. 남편은 군부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결혼했고 두 번째 탈락(Tarlac)출신 남편도 필리핀군인이었으며 그가 10세 때 미국으로 이민 갔었다.

줄리는 두 번째 남편을 미국에서 만났다. 그가 캠프 님블(Nimble)에서 근무했을 때 그녀의 셋째아이인 딸이 생겼다. 그러나 딸을 적합한 학교에 보내기가 쉽지 않아 알래스카주의 통신교육을 통한 가정 내 교육을 받았다. 남편이 JDW UNIT의 님블캠프에서 일할 때 그녀는 임신하였다. 줄리는 내게 매우 유익했는데 JDW의 지휘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다행히도 내년엔 그녀의 남편이 용산으로 옮겨와서 아이들을 위한 적합한 학교를 보내게 될 것이 기대된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5 : 트리나

트리나는 전에 일하던 클럽에서 만난 미군과 결혼했으며, 남편의 비자는 E-7에서 지금은 SOFA 비자로 바꾸었다. 트리나는 다른남자와 관계있던 사람사이에서 낳은 아이 한 명이 있으며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자 한다. 지금 그녀는 임신 3개월째이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6 : 로나

로나는 동두천의 D클럽에서 월 52만원을 받았다. 그녀는 A프로모션과 계약했으며 일년간 계약을 끝냈다. 그녀는 지난 2003년 8월28일에 한국에 들어왔다. 그녀가 일할 클럽은 필리핀 대사관의 검증을 받은 곳이었다. 로나는 본인의 비자관련서류 및 ARB(연예인등록증)를 소지하고 있다. 남편은 케이스(Casey)부대에서 제대하고 고향인 캔자스 시티(Kansas City)로 돌아갔다. 지금 그녀는 미국 이민자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남편이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SOFA 비자는 발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ACS에 가서 비자발급을 신청해보라고 권유했었다. 다른 필리핀 여성들처럼 로나도 필리핀보다 한국에서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데, 이유는 필리핀에서 받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7 : 에마

에마는 미군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이다. 그녀는 두 살짜리 아이와 자주 필리핀 상점에 물건을 사러 왔다. 그녀는 안색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으며, 팔과 다리에 문신을 많이 새겼고 담배를 많이 피웠다. 그리고 아이에게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한번은 그녀의 목이 부어올라 있는 것을 보고 갑상선을 앓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약을 먹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에마는 갑상선염 때문에 병원에 진찰 받으러 용산에 가는 것이 귀찮다고 했다.

▶ 미군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18 : 릴리 (Q)

릴리는 필리핀에서 온 30세 된 미혼모이다. 그녀는 미군과 결혼했고 대부분 동두천 지역에서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이 사는 미군거주지역에서 산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필리핀의 바리오 피에스타(Barrio Piesta)에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음식보조하는 일을 하며 4천 페소를 벌었다. 그녀는 가톨릭 집안으로서 전문대학을 다녔다.

2001년 3월 5일 한국에 온 그녀는 한 친구를 통해서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필리핀에서 버는 봉급이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한국에 왔다. 필리핀의 송출업체는 마닐라에 있는 VJ프로모션 산하의 보비 헤르난디즈(Bobbie Hernandez)였다. 그녀는 송출업체 소개료로 375달러를 지불했다. 여권에는 늘 본명을 썼다. 그녀는 E-6비자로 곧바로 한국에 왔다. N클럽에서 일했고 미군남자친구와 결혼하기 전에 계약이 끝났다. 전에 일했던 클럽의 경험은 비슷한 조건에 처해 있던 다른 여성들과 비교할 때 괜찮은 편이었다. 일하는 조건도 괜찮았고 봉급은 제 날짜에 받았다. 그러나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는 미군남자친구에게 계약위약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안 그러면 본국에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녀는 미군과 결혼하는 것이 클럽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가 그녀의 필리핀 가족과 아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릴리의 경우는 미군남편에 의해 많이 돌봄을 받고 있어 보이며 그녀는 미군부대에 의해 주어지는 이익들을 즐기고 있어 보인다. 남편은 그녀를 많이 돕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녀의 이민비자가 나와서 한번에 미국으로 떠난 것을 준비하고 있다.

▶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의 사례 : 웰라Wella

웰라는 한국남자와 국제결혼해서 한국에 왔다. 그녀는 북부 필리핀 지역인 팡가시난(Pangasinan) 출신이다. 그녀는 한국인을 필리핀의 통일교에서 만났다. 그녀는 한국인 남편을 떠나, 파주에서 일을 찾았다. 그녀는 친구와 텃거리에 머무는 동안 미군남자친구를 만났다. 파주에서 일을 그만두고 그때까지 결혼 중이었던 미군 남자친구와 살고 있었다. 최근 웰라의 남자친구는 이혼서류를 구비했고 둘은 2003년 12월 초 결혼하였다.

▶ 미군과 동거하는 여성의 사례 1: 제니스

제니스는 필리핀의 라구나(Laguna)에서 온 25세 여성이다. 그녀는 2001년 의정부의 S클럽에서 일했다. 그녀는 E-6비자로 곧바로 한국으로 왔다. 클럽에서 도망쳤는데 클럽 안에서 너무 많이 확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대들은 음식을 굽기는 것, 성매매를 안 하거나 주스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문을 걸어 잠그고 자유시간을 주지 않는 것 등으로 지속되었다.

캠프 스탠리에 근무하는 미군과 동거했을 때 그녀는 전화카드가게에서 일했다. 그녀는 2002년 월드컵 기간 중의 사면기간 때 등록 할 수 있었고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었다. 동거중인 미군 남자친구는 거의 2년 동안 결혼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녀에게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위한 일을 갖게 허락하기 보다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사와서 같이 살게 하고 있다. 최근 그녀는 상담자에게 2003년이 끝나기 전에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군과 동거하는 여성의 사례 2 : 크리스

크리스는 북부 필리핀 지역 이사벨라 산디아고에서 온 26세 여성이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했던 리바의 친구다. 그녀는 두 달된 아이와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지 모른다. 그녀는 한국에 가짜여권으로 들어왔고 여권에 기록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며 매니저가 여권을 압수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2001년 12월 16일 한국에 왔다.

그녀는 작년에 11명의 여성들이 클럽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DD에서 일했었다. 동두천 전에는 BA에서도 일했는데 석 달 만인 2002년 4월경 클럽을 떠났다. 그녀는 도망친 후 인천의 수건공장에서 일했다. 2002년 7월 미군를 만나서 1년간 같이 살았다. 그녀의 딸은 2003년 7월 31일 태어났다.

▶ 미군과 동거하는 여성의 사례 3: 어니 **(Q)

어니(34세)는 필리핀 남부의 잠봉가(Zamboanga)시 출신이다. 그녀는 사촌의 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여권상의 그녀의 나이는 28세였다. 현재 그녀는 필리핀 남편과 4년째 별거중이며 3명의 아이들은 그녀의 가족과 잠봉가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동두천에 있는 M클럽에서 일했으며 그 곳에서 어니의 할당량은 1주에 술 160병이었다. 그녀가 파는 술 10달러당 2천원의 커미션을 받았으며, 2차 또한 있었는데 그녀는 거절하지 않고 몇 차례 나간 적이 있다. 그때 커미션으로 고작해야 2백 달러당 5만원을 받았다. 결국 그녀는 2차 나가기를 거절했는데, 마마상은 그녀의 머리를 때렸고 이런 신체적 폭력이 어니가 클럽에서 도망친 이유이다.

클럽에서 나온 후 어니는 공장을 전전했고, 지금은 미군애인과 동거한지 1년 남짓 지났다. 어니의 애인은 그녀와 결혼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 남편과 4년간의 별거로 인해 사이가 멀어지긴 했지만 어니는 현재 법적으로 혼인한 여성이다.

그녀의 친구들은 다른 필리핀 여성들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미군과 결혼하려고 한다. 그러나 어니는 합법적인 결혼절차를 밟기 원하며 필리핀 남편과 법적 이혼을 원한다. 어니는 지난 11월15일에 필리핀으로 돌아갔고 적법한 결혼이 가능하도록 미군애인이 필리핀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생활 환경

동두천 지역의 턱거리에 있는 결혼한 여성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필리핀인 모임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참석하는 것에는 열성이 없어 보인다. 그들 중 일을 찾은 사람들은 전화카드가게에서 그들 일하기에 바쁘다.

그들 가운데 결혼한 여성들은 주변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수다를 즐기고 필리핀에서 유명한 게임에 열중하기도 한다. 그들 중 몇몇은 쇼핑을 가거나 때로는 남편들과 클럽을 간다.

문제점 및 우려사항

계약을 갱신하려는 여성들은 6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그룹비자에 묶여서 계약을 갱신하라고 강요받는다. 그들은 한국인 매니저로부터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는 대신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클럽에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들 때문에 클럽을 떠나거나 도망하는 여성들이 대안적인 비자를 받거나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군들과 결혼한 몇몇 여성들은 정확하게 그들의 남편들과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른다. 만약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어디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안다하더라도, 대부분의 필리핀 여성들은 정확한 영어를 할 수 없고 미군기지 안에 상담자들은 대부분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크다.

필리핀에 아이를 두고 온 여성들의 경우에는 미군과 결혼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아이들을 보낼 학교가 없다. 남편이 서울로부터 벗어나면 적합한 학교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찾기가 어렵다.

2) 러시아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

▶ 선샤인 클럽

마리아는 29살이고 나타샤는 26살이다. 둘은 모두 블라디보스톡에서 왔는데 한국에 오기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이곳에 오려고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지냈다. 나타샤는 4살된 아들이 있고 남편은 러시아에서 전기기사이다. 러시아에서 그녀는 플라스틱창문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